



# 봉사를 위해 일어나기

루히 연수원



제 2 권



# 봉사를 위해 일어나기

루히 연수원

## 루히 시리즈

루히연수원이 발간한 연속 출판물은 전 세계 청소년과 성인이 봉사역량을 개발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려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제 3권 바하이 어린이교실 교사양성 과정, 제 5권 주니어유스 그룹 애니메이터 양성 과정에는 상위 단계의 분지 과정이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교육 현장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루히연수원의 연속 출판물은 개정을 거듭하고 있으며, 목록의 책 또한 계속 추가될 것입니다.

- 제 1 권 **영성과 삶**
- 제 2 권 **봉사자로 일어나기**
- 제 3 권 **어린이 교육 1단계**  
어린이 교육 2단계 (분지 과정)  
어린이 교육 3단계 (분지 과정)  
어린이 교육 4단계 (분지 과정)
- 제 4 권 **두 현시자**
- 제 5 권 **주니어유스 잠재력 끌어내기**  
최초의 충동 (분지 과정)  
서클의 확장 (분지 과정)
- 제 6 권 **대업의 진리 나누기**
- 제 7 권 **봉사의 길 함께 걷기**
- 제 8 권 **바하올라의 성약**
- 제 9 권 **역사적 안목**
- 제 10 권 **활력 있는 공동체 구축하기**
- 제 11 권 **물질적 수단**
- 제 12 권 **(발간 예정)**
- 제 13 권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 제 14 권 **(발간 예정)**

Copyright © 2019, 2021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All rights reserved. Edition 2.1.1.PE published in June 2021  
Printed in Korea

Originally published in Spanish as *Levantémonos a servir*  
Copyright © 1987, 1996, 2020 by the Ruhi Foundation, Colombia  
ISBN 978-958-52941-0-3

Permission for a limited printing of this book in Korean has been granted to the Training Institute of Korea by the Ruhi Institute.

Ruhi Institute  
Cali, Colombia  
Email: [instituto@ruhi.org](mailto:instituto@ruhi.org)  
Website: [www.ruhi.org](http://www.ruhi.org)

한국 바하이 출판재단  
용산구 후암로 12  
서울, 우편번호 04331  
전화: +82-2-754-1947  
[nsakorea@bahai.or.kr](mailto:nsakorea@bahai.or.kr)

## 목 차

조교에게 드리는 말씀 / 1

가르침의 기쁨 / 7

힘을 신는 대화 / 23

심화 주제 / 47



## 조교에게 드리는 말씀

본 교재는 루히 연수원이 제공하는 2단계 과정으로,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한층 더 의미 있고, 서로에게 힘을 신게 하는 역량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주안점을 두는 구체적인 봉사 활동은 마지막 단원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결속을 끊어내는 여러 힘들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현 세계 속에서 친구와 이웃의 집을 방문해 사회의 삶에 극히 중요한 주제를 탐구하는 실천이 문화적 특징으로 두드러지면, 증가하는 사회적 고립이 초래하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우정 어린 유대는 생동하고 조화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신습니다.

인근의 이웃이나 마을의 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에는 일정 수준의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몇몇 헌신적인 이들이 핵심 인력이 되어 그 목적에 필요한 행정 기제와 기구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조교는 한 그룹의 사람들을 이 공부로 인도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이 노력에 그들 역시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친구와 이웃을 방문하는 활동은 공부의 일환이며, 봉사하는 삶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본 교재의 공부는 해를 거듭해 지속되는 이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지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사회적 중요성을 갖는 주제를 함께 탐구하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은 커뮤니티 문화의 질을 뚜렷이 향상합니다. 방문에 못지않게 중요한 활동이 있으니 곧 가정과 직장, 학교와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많은 소통입니다. 일상의 대화 속에 이따금씩 영적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 개발해야 할 중요한 역량입니다. 이 역량 개발이 본 교재 2단원의 초점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3단원의 공부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 더불어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이 힘을 신는 대화가 되려면, 우리는 그들과의 소통에 기쁨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1단원 “가르침의 기쁨”은 바로 그 중요성을 다룹니다. 루히 연수원이 권장하는 모든 봉사 행위는 본질적으로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에서 발굴한 신성한 지혜의 진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활동과 연관됩니다. 1단원은 이러한 노력이 가져오는 기쁨에 의식을 향상하도록 의도합니다. 단원의 몇 장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흥미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내면에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그 기쁨이 다시 봉사의 길을 걷는

발걸음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점을 이 단원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확신한다 해도, 봉사 행위를 구별 짓는 자질과 태도에 주의 기울이지 않으면 가르침의 기쁨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 과정의 상위 교재에서 반복해서 소개될 주제입니다. 본 교재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선별해 다룹니다. 7장은 초연의 자질에 관해 말합니다. 바하이 문헌에서 발췌한 몇 개의 인용문이 이 영적 자질을 성찰하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외부의 요인 때문에 봉사가 주는 기쁨이 감퇴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면, 초연은 반드시 구비해야 할 자질입니다. 조교는 이 부분에서 참여자들이 초연을 무관심, 혹은 정성이 부족한 태도와 잘못 연관 지으며 공부를 마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의 강도를 더해 가야 하고, 우리가 하는 봉사의 효력이 증대되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래서 보다 나은 결실을 보도록 늘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의 성격에 관해서는 적절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8장의 주제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은 봉사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근본적 태도, 낙관과 감사를 다룹니다.

2단원 “힘을 신는 대화”는 적절한 여건 하에 영적 원리를 가리켜 보임으로써 일상의 대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원의 내용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서술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압돌바하의 발언 내용을 토대로 하며, 정확한 인용의 형태는 아니지만 그분께서 사용하신 단어와 구문 가운데 상당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지닌 공동의 관심사와 염원을 다루며, 보편적 호소력을 갖습니다. 희망하건대, 참여자들이 이 서술문의 공부를 통해 압돌바하께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신 방식에서 영감을 얻고, 스스로 바하올라 계시의 심해 속에서 진주를 캐 때, 가르침의 의미와 함의를 공부할 때, 그것을 다른 이들과 아낌없이 나눌 때 늘 압돌바하를 향하는 습관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단원의 목적을 잘 성취하려면, 주제별 서술문을 반복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참여자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전개 순서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말해 봄으로써 개념들을 체화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엔 기본적으로 서술문을 외워, 단원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신앙의 지식을 심화하고, 경험을 키워나간다면 점차 더 방대한 범위의 개념과 더 풍부한 단어를 활용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다른 이들과의 소통에 반영될 것입니다. 조교는 현 단계에서 이 단원이 추구하는 목표가 다음의 두 가지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수월하게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압돌바하와 한 방향으로 사고의 정렬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주제별 서술 내용을 말해보기를 학습했다면, 다음 단계로는 그 개념을 가족, 친구, 동료들이 관심을 두는 주제와 연결하기로 나아갑니다. 참여자는 일상의 대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와 질문을 떠올리고, 자신이 학습한 개념을 도입할 기회를 열어주는 대화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몇 개의 서술문에는 한두 개의 예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예시들은 압둘바하께서 밝히신 영적 원칙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관심사에 어떤 해결의 빛을 비추는지를 보입니다. 교재 공부와 진행되는 동안 조교가 그룹의 일원들을 도와, 각자 한 개의 서술문을 선택해 누구와 더불어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면 보다 나은 결실을 볼 것입니다. 참여자들이 함께 모일 때 시간을 할애해, 그 사이 자신이 참여한 일상의 대화가 어떤 역동성을 띠었는지 서로에게 묘사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 소개된 모든 서술문에는 바하올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구절이 함께 제시되어, 참여자가 그것을 암기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루히 연수 과정이 암기를 강조한다는 점은 교재 1권에 익히 드러나 있습니다. 교재 2권에는 이 점이 더욱 부각됩니다. 2권 과정을 밟는 참여자라면 바하올라의 문헌의 한 구절을 마음에 떠올릴 때마다 영적 자양분을 취하고 있음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리라 가정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 가슴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층 깊이 성찰합니다. 3단원에서 바하이 문헌에서 발견되는 원칙과 개념을 표현하고, 적절한 경우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해서 말해보기를 이어갑니다. 가르침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로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봉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역량 가운데 하나입니다. 압둘바하께서 설명하신 방식으로 가르침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이 역량 강화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 이것이 2단원의 밑바탕에 있는 기본 전제입니다.

3단원 “심화 주제”는 공동의 삶에 극히 중요한 주제에 관해 친구와 이웃과 더불어 대화 나누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그들을 방문하는 봉사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단원은 세 유형의 대화를 대략 예상해 보면서, 각각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제시합니다. 첫째 유형은 체계적인 방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을 주민이나 인근 이웃과 함께 나누어 볼 만한 일련의 대화입니다. 본문에서 윤곽을 그려 본 이 유형의 대화는 해당 주제에 흥미를 보이는 어느 누구와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한 가구의 가족원들에게 신앙의 지식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원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첫째 유형의 대화에 할애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정을 방문하는 활동은 새로운 국면을 띠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지역 단위, 곧 마을이나 인근 지역 단위로까지 세분된 반경 내에서 조교, 주니어유스그룹 애니메이터, 어린이교실 교사로 활동하는 개인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정방문은 비단 신앙의 지식을 선포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주니어유스 영성 임파워먼트, 어린이 영성 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 전개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곧 애니메이터와 어린이교실 교사가 활동 참여자들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과 접근법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유형의 대화로서, 14장과 15장에서 검토됩니다. 단 두 개의 장에서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으나, 연수 과정의 다음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여기 언급된 두 개 교육 프로그램에 보다 친숙해질 것입니다. 현 초기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둘째 유형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나 애니메이터가 부모를 방문할 때 함께 동반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단원이 그려 보인 셋째 유형의 대화는 대단히 특별한 목적을 띠니다. 참으로 많은 청년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헌하려는 자신의 열망이 적절한 표현력을 얻도록 다양한 통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젊은 남성과 여성은 사회의 변화를 위해 활용되기를 기다리는, 아니, 염원하는 막대한 역량의 저수지입니다. 청년기에 열려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에 관해 성찰하는 청년들의 대화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와 비범한 잠재력이 더해져 종종 봉사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구 전역의 마을과 인근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활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에게 영성 교육을 제공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교사 및 애니메이터 연수 과정에 초대받을 때, 많은 이들이 차례로 호응할 것입니다. 9장과 10장은 이 유형의 대화 속에서 탐구할 만한 몇 가지 개념들을 제시합니다.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을 열고, 그것을 지속하는 개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폭넓은 주제와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개념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역량 뿐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영적 자질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단원에서 전개되는 많은 이야기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4장에서는 자질과 태도가 역량 개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힙니다. 이 장은 우리가 가정을 방문할 때 어떤 정서와 생각으로 가슴과 머리를 채워야 할지 묻습니다. 5장은 겸손의 자질을 다룹니다. 조교는 이 두 개의 장에 참여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얼마나 개념을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간에 대화의 효력은 대화에 임하는 사람의 자질과 태도에 의존합니다.

여기서 묘사된 봉사 행위는 커뮤니티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개개인이 공부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개발해 가는 단계적 활동임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조교가 반드시 인식할 점은 모든 봉사 행위는 단계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며, 교재 공부가 진행됨에 따라 활동의 복잡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봉사 행위를 효과적으로 연마하는 것은 다음 단계의 봉사를 연마하기 위한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몇 차례 가정을 방문해 대화를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은 교재 1권이 격려하는 활동, 곧 혼자서든 다른 이들과 협력해서든 정기적으로 예배 모임을 주관하는 활동보다 더 많은 것을 뚜렷이 요구합니다. 향후에 보다 복합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언급된 역량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재 1권의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이 본 연속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은 바하이 가르침에 관한 친숙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교재 2권의 공부를 시작한 이라면 누구나 이 연속 과정이 펼쳐 보인 봉사의 길에 이미 들어섰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 사이의 차이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주니어유스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청년이라면, 이 교재에 제시된 서술과 주제의 상당 부분이 새로울 것이며, 이 공부가 신앙에 관한 지식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조교는 그룹 내 모든 일원의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기꺼이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도 본 과정의 주요 목적, 곧 의미 있고 힘을 신는 대화를 이어가는 역량의 개발이 확실히 진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할 점은 전 세계 수천여개 지역에서 본 교재 세 개 단원의 공부를 통해 공헌하려는 커뮤니티 구축의 과정은 저마다 상이한 발달 단계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배움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은 다소간 상이한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교가 그룹의 학습을 인도하면서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밀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점을 또한 시사합니다.



# 가르침의 기쁨



## 목적

가르침의 기쁨은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행위에 있음을 인식한다.



## 제 1 장

《봉사를 위해 일어나기》는 루히 연수원이 제공하는 2단계 과정으로 공부와 활동의 결합을 추구합니다. 본 과정의 목적은 여러분이 걷기 시작한 봉사의 길에서 계속 전진해 가도록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걸으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적, 지적 성장을 스스로 주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몸담은 세계의 변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1단계 과정에서 우리는 바하올라의 경전 문헌에 예견된 새로운 세계질서에 시선을 고정하면서 수행하는 일련의 봉사 행위를 길의 개념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길을 걷기”는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과 공동의 삶에 적용하려는 연속적인 노력을 가리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계시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들이여! 성스럽고, 신성하게 예정된 나의 계시는 최상의 광택을 지닌 진귀한 진주들이 심해에 무수히 감추어진 대양과 같다. 모든 탐구자의 의무는 분발하고 노력하여 이 대양의 해변에 도달해, 탐구의 열정과 기울인 노력에 비례한 제 몫의 유익을 얻는 것이니, 이는 하느님의 철회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서판에 예정된 것이다.”<sup>1</sup>

이 단원은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 속에 놓인 지혜의 진주를 발굴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가슴에 차오르는 기쁨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이미 여러분은 교재 1권 공부를 통해 그분의 말씀이 간직한 신성한 인도의 진주들이 얼마나 강렬한 아름다운지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몇 개 인용문을 음미해 봅시다.

“하느님의 발언은 등<sup>燈</sup>이요, 그 빛은 다음의 말씀이다. 너희는 한 나무의 열매요, 한 가지의 앞사귀이다.”<sup>2</sup>

“내 눈 앞에 가장 사랑받는 것은 정의<sup>正義</sup>이니, 나를 바라거든 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sup>3</sup>

“그대가 사는 시대의 필요를 절실히 염려하고, 그 긴박한 사태와 요구를 심사숙고하라.”<sup>4</sup>

“모든 사람은 영원히 진보하는 문명을 전진하도록 창조되었다.”<sup>5</sup>

“세계는 모두 사라져 없어질 뿐이나, 영원히 남을 것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다.”<sup>6</sup>

“너는 내 등이며, 내 빛이 네 안에 있노라. 거기서 네 빛을 얻고 나 외에 달리 아무도 찾지 말라. 내가 너를 부유하게 창조했고, 너를 총애해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이다.”<sup>7</sup>

시간을 할애해서 이 짧은 성구들을 암기해 보시겠습니까.

## 제 2 장

우리는 이 단원의 중심 주제를 음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의 인용문을 다시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의 \_\_\_\_\_ 에 \_\_\_\_\_ 하기 위해 \_\_\_\_\_ 하고 \_\_\_\_\_ 하는 것이다.

나. 우리는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의 해변에 도달하기 위해 분발하고 노력하여 하느님의 철회할 수 없고, 숨겨져 있는 「서판」에 예정된 대로 자기 몫의 \_\_\_\_\_ 을 얻어야 한다.

다. 우리는 \_\_\_\_\_ 에 비례하여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다.

2. “분발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

3. 무엇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무슨 뜻입니까?

---



4. 모든 탐구자가 도달하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5. 무엇이 다른 무엇에 “비례하여”란 무슨 뜻입니까?

---

6. 바하올라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나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비례하여 그분의 계시의 대양에서 유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 우리가 이 유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노력의 사례를 꼽아보세요.

---

---

---

---

나. 우리가 얻는 유익의 사례를 들어 보세요.

---

---

---

---

### 제 3 장

바하올라의 계시는 값어치 없는 진귀한 진주들을 품은 심해와 같기에, 우리는 각자 자기 몫의 유익을 취하고, 다른 이 또한 그 해변에 도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양의 해변은 나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을까?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들이여! 한 분 참된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이 가장 위대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파도치는 「대양」은 그대에게 가까이, 놀라울 만큼 가까이 있다! 그대의 핏줄보다도 더 그대에게 가까이 있음을 보라! 그대가 원하기만 하면 눈 깜짝일

사이에 이 불멸의 총애, 하느님의 은혜, 썩지 않는 선물, 가장 강력하고 형용할 수 없이 영광스런 은사에 도달해 그대의 몫을 취할 수 있다.”<sup>8</sup>

1. ‘가장 위대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파도치는 「대양」’이란 무엇을 가리키나요?

---

2. 이 대양은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

3. 우리는 얼마나 신속히 이 대양에 도달할 수 있나요?

---

4. 다음 문장들을 완성하세요.

가. 이 가장 위대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파도치는 대양은 우리에게 가까이,  
\_\_\_\_\_ 있다.

나.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은 우리의 핏줄보다 우리에게 \_\_\_\_\_ 있다.

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_\_\_\_\_ 사이에 이 계시의 대양에 \_\_\_\_\_ 하여 자신의 몫을 \_\_\_\_\_.

라. 우리가 \_\_\_\_\_ 만 한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계시의 대양에 도달하여 우리의 몫을 취할 수 있다.

## 제 4 장

바하올라의 계시의 대양 해변에 도달한 우리는 심해의 보물을 캐내고, 신성한 인도의 진주들을 조건 없이, 후하게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부단한 공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아울러 그분의 대업과 인류에 봉사하는 노력을 통해 그 보물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구절은 이 신성한 의무를 부단히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간을 갖고, 아래 구절을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길을 걷는 나그네여! 그분의 은혜의 대양에서 그대 몫을 취하고, 그 심해에 감춰진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 보물을 나눠 가진 이가 되라. 이 대양의 이슬 한 방울이라도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이에게 뿌려진다면 하느님,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의 은총으로 충분히 그들 모두를 부유하게 하리라. 단념의 손으로 이 대양에서 생명수를 담아와 모든 피조물 위에 흩뿌리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인위적 제약에서 정화되어 하느님의 권좌, 이 거룩하고 찬란한 「자리」에 다가올 수 있게 하라.”<sup>9</sup>

## 제 5 장

연수 과정의 각 단계가 요구하는 공부와 활동을 수행해 가면서 우리의 봉사 역량은 증대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고, 삶의 두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게 돕는 봉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영성 교육, 주니어유스의 영성 임파워먼트, 친구들이 함께 한 스터디 서클이 있습니다. 이 여정 전반에 걸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남녀노소 모두와 나누게 되는데,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인간의 가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명상해 보아야 합니다. 바하올라께서는 그 효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 가슴 속에 뿌리가 심어진 묘목과 같다. 그대들에게 지워진 의무는 성결하고 거룩한 말씀과 지혜의 생명수로 이 묘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니, 그것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이 하늘과 그 너머까지 높이 뻗어나가게 하라.”<sup>10</sup>

1.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에 비유될 수 있습니까?

---

2. 하느님의 말씀의 묘목은 어디에 그 뿌리가 심어져 있습니까?

---

3. 우리는 이 나무의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습니까?

---

4. 어떤 높이까지 이 나무는 성장할 수 있습니까?

---

5.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 왜 극히 중요한지 몇 개의 문장으로 설명해 주세요.

---

---

---

---

---

## 제 6 장

우리의 일상생활을 차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지적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공부를 합니다. 일을 하고, 사회의 생산적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기술을 연마합니다.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즐깁니다. 이 다양한 활동은 우리의 지적 발달과 물질적 안녕을 위해 중요하며, 우리 시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시간 속에는 영성으로 충만한 특별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홀로 혹은 함께 신성한 가르침의 지식을 심화하고, 무수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바하올라 계시의 대양에 감추어진 진주들을 발굴하도록 주위의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은 측량할 수 없이 소중한 순간입니다. 천상의 축복을 함께 나눠 갖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을까요.

인류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일에 헌신하도록, 압둘바하께서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늘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신성한 목적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물질적 동기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열렬한 소망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펼치는 것입니다!”<sup>11</sup>

우리가 제 1장에서 암기했던 인용문 가운데 하나를 친구에게 나눌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어디서 기인한 것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친구가 바하올라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가 우리의 기대만큼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가슴을 채운 기쁨이 단순히 사라지고 말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럴까요?

---

---

---

---

---

## 제 7 장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순간에는 특별한 은총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봉사에서 얻는 기쁨은 봉사의 행위 자체에 기인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수행한 봉사에 가치 있는 결과가 따르길 기대합니다. 다만,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칭찬이나 비판에 과도한 영향을 받으면, 우리는 가르침의 기쁨을 잃게 됩니다.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 넣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며, 성공을 하거나, 이득을 얻거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아래의 인용문을 공부하면 이 주제를 성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눈의 아들이! 한 눈은 감고 다른 눈은 뜨라.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에 한 눈을 감고, 임의 거룩한 아름다움에 다른 눈을 뜨라.”<sup>12</sup>

“벗들아! 사라지고 말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영속하는 아름다움을 버리지 말고, 현세의 흙의 세계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sup>13</sup>

“발언의 아들이! 내게로 네 얼굴을 돌려 나 아닌 일체의 것을 단념하라. 내 주권은 영원히 지속하며 내 영토는 결코 멀하지 않는다. 네가 나 외의 다른 것을 찾으려면, 설사 우주를 영구히 탐색한들 네 추구는 헛되고 말리라.”<sup>14</sup>

“벗이 된 낯선 이야! 가슴의 촛불은 내 권능의 손으로 켜졌으니, 자아와 걱정의 역풍으로 이를 끄지 말라. 네 모든 불행을 치유하는 것은 나를 기억함이니, 이를 잊지 말라. 내 사랑을 네 보배로 삼아 네 시력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sup>15</sup>

“초연은 마치 태양과 같다. 어떤 마음이라도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탐욕과 이기심의 불길을 꺼트릴 수 있다. 이해의 빛으로 밝아진 눈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세상과 그 안의 헛된 것에 초연할 것이다...세상의 추악함에 그대는 슬퍼하지 말라. 부자라고 거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sup>16</sup>

1. 이 세상으로부터 초연하다는 말은 은자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나요?  
\_\_\_\_\_
2.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초연한 것이 가능한가요?  
\_\_\_\_\_
3. 사실상 주어진 모든 시간을 업무를 보는 데 바친다면,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하다고 볼 수 있나요?  
\_\_\_\_\_
4.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남은 시간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한 것인가요?  
\_\_\_\_\_
5. 봉사의 장에서 물질적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면 이 세상의 것에 초연한 것인가요?  
\_\_\_\_\_
6. 물질적 소유 외에도 우리가 애착을 갖는 것은 많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이 묘사될 수 있다면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신앙을 위해 봉사 활동을 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  
\_\_\_\_\_
- 내가 나눈 생각을 다른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기가 꺾인다.

---

-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까봐 자신의 믿음을 숨긴다.

---

7. 초연은 무관심이나 정성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중 초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다른 사람의 성장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
- \_\_\_\_\_ 몇몇 어린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본 후 어린이교실을 닫는다.
- \_\_\_\_\_ 자신의 성취를 뽐낸다.
- \_\_\_\_\_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자신이 도달한 진보에 만족을 느낀다.
- \_\_\_\_\_ 공공의 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일한다.
- \_\_\_\_\_ 자신의 직업에서 탁월성을 추구한다.
- \_\_\_\_\_ 청결함을 실천하고 깨끗하고 정돈된 집을 유지한다.
- \_\_\_\_\_ 자신이 소유한 물품을 세심히 관리한다.
- \_\_\_\_\_ 다른 사람의 안녕을 잘 살핀다.
- \_\_\_\_\_ 자신의 노력에 관해 칭찬을 받지 못할 때 낙담한다.

8. 우리 각 사람이 초연의 덕목을 연마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장에 소개된 모든 인용문을 암기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 제 8 장

인류에게 봉사하는 삶이 주는 다양한 기쁨의 선물을 받으려면, 기꺼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노력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희생’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친구가 이른 새벽 여행에서 돌아올 때 평소보다 일찍 기상해 친구를 마중 나갑니다. 이 때문에 몇 시간의 잠을 희생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이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돌보기 위해 휴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 속에서 극도로 힘들게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편안함을 희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대업에 봉사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바치고, 가능한

최대로 우리 몫의 물질적 자원을 바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봉사의 길 위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얻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며 얻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연수 과정의 상위 단계에서 희생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성찰할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희생은 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을 얻기 위해 보다 낮은 가치를 지닌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씨앗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은 기쁨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욕을 진정으로 발휘하기 전까지, 그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그분을 찾으려면 노고가 필요하고, 그분과의 재회의 감로수를 들이키려면 열의가 필요하오. 그리고 이 잔을 맛본다면 세상을 물리치게 될 것이오.”<sup>17</sup>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권유하십니다.

“... 쉬지 말고, 평안을 구하지 말며, 이 덧없는 세계의 사치품에 애착을 두지 말고, 스스로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며, 가슴과 영혼을 다해 「하느님의 왕국」에 확고히 자리 잡으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획득하십시오. 매일 매일 더 빛나는 존재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단일성의 문턱으로 자신을 가까이 이끄십시오.”<sup>18</sup>

목표를 성취하려면 그에 상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들리는 이 믿음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실질적 함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면한 목표와 임무의 난이도와 그것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의 양 사이에는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충분치 않은 노력으로 여전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노력의 양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꾸준함과 끈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초점의 유지도 필요합니다. 시작한 일을 마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땀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언급된 것은 모두 본질적 요소입니다. 성의 없는 노력으로는 결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열리는 어린이 영성 교실을 상상해 봅시다. 어린이 교사는 각 클래스 전에 준비를 위해 일정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클래스 중에는 어린이들이 각 과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의 부모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매주 각 어린이의 발전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가 클래스 준비를 이따금씩만 한다면, 교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도중에 일방적으로 마치면 클래스는 끝내 어떻게 될까요? 꼭 돌봐야 하는 다른 일 때문에 - 예컨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한 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 번번이 교실을 가볍게 취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할 때, 우리가 관여한 모든 활동에 요구되는 노력의 양과 질, 이 두 가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는 봉사에만 적용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발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교재 1권에서 살펴 본 영적 습관 - 예를 들어,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매일 경전의 문헌을 읽기, 가르침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정렬할지 숙고하기, 예배모임에 참여하기 - 은 지속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아래에는 우리의 노력과 관련된 몇 개의 진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참인지 확인해 보면서 이 사안에 관해 더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_\_\_\_\_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 열심히 안 해도 돼.
- \_\_\_\_\_ 언제나 지름길부터 먼저 찾으라. 우회하면 안 되니까.
- \_\_\_\_\_ 진짜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 \_\_\_\_\_ 꿈을 크게 가지라. 원하면 이루어진다.
- \_\_\_\_\_ 보상이 커야 노고도 큰 법이다.
- \_\_\_\_\_ 노력이 고될수록 보상이 달다.
- \_\_\_\_\_ 첫 시도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본다.
- \_\_\_\_\_ 다른 사람이 나 대신 하게 하면 될 일을 굳이 내가 해야 하나?
- \_\_\_\_\_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 \_\_\_\_\_ 작은 걸음도 일관되게 연속해서 떼면 아무리 먼 길도 다다를 수 있다.
- \_\_\_\_\_ 귀한 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 \_\_\_\_\_ 탁월성은 전심을 다한 헌신을 요구한다.
- \_\_\_\_\_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_\_\_\_\_ 적당히 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 \_\_\_\_\_ 일은 기다려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 \_\_\_\_\_ 성공은 운일 뿐이다.
- \_\_\_\_\_ 우리가 추구하는 두 가지 목적은 마술처럼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 \_\_\_\_\_ 우리는 나날이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는 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자신의 영적, 지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의 변형에 기여하도록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중의 목적은 우리 편에서

기울이는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하올라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비하신 창조주께서는 모든 인간을 동일한 하나의 질료로부터 창조하시어, 어떤 피조물도 접근할 수 없는 경지로 그의 실재를 높이셨다. 그러기에 성공과 실패, 이득과 상실 일체는 인간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 그가 분투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보다 더 위대한 진보를 성취해 낼 것이다.”<sup>19</sup>

## 제 9 장

봉사 행위에서 기쁨을 끌어내려면, 몇 가지 태도를 내면에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봉사의 은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대업에 봉사하면서, 혹 우리 편에서 그분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상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비관주의를 피하며, 세상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삶을 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봉사의 길에서 마주친 걸림돌은 보다 큰 진보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의 한 복판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압둘바하께서는 희망과 낙관의 태도가 우리가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특징짓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시작이 아무리 작더라도 끝내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보지 말고 나무와 만개한 꽃, 잎사귀와 열매를 보십시오.”<sup>20</sup>

“그러니 이 작은 씨앗이 극히 소중함을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농부」가 주님의 쟁기질 된 밭에 당신의 자비의 손으로 심고, 선물과 은총의 비를 내리시고, 이제 「진리의 태양」의 열과 빛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sup>21</sup>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거든 결실을 기대하십시오.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바짝 마른 나무나 고목에선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sup>22</sup>

“그러니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은 자신이 쏟는 노력의 강물로 이 희망의 나무를 힘써 돌보고 양육하여, 성장을 촉진하십시오.”<sup>23</sup>

“인간의 가슴이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돌아서 행복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에 소망과 믿음을 두지 않은 채 휴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sup>24</sup>

위의 단락을 잘 성찰하기 위해, 아래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 씨앗은 시작이 아무리 작더라도 끝내 \_\_\_\_\_.
2. 우리는 씨앗을 보지 말고 \_\_\_\_\_을 보아야 합니다.
3.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씨앗이 지극히 소중한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씨앗을 당신 자비의 손으로 심으시고 \_\_\_\_\_.
4.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_\_\_\_\_.
5. 나무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_\_\_\_\_를 희망해야 합니다.
6. 우리가 쏟는 노력의 강물로 우리는 \_\_\_\_\_.
7. 인간의 가슴이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돌아선다면 \_\_\_\_\_?
8. 인간의 가슴이 하느님의 자비에 소망과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 \_\_\_\_\_?

이제 잠시 성찰해 봅시다. 기쁨과 희망의 정신이 겸허한 감사의 자세와 결합할 때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언제나 이 점을 염두에 둡시다. 대업에 봉사하기 위해 일어날 때, 우리는 새 「날」의 새벽에 관한 복음, 전 인류의 회합의 「날」에 대한 복음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바하올라의 아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울려 퍼지기를.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과 땅 위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를 단단히 붙든 사람은 행복합니다.”<sup>25</sup>

## ■ 참고 문헌

1. 《바하올라 선집》 (한국바하이출판재단 2012) 153.5.
2. 상동, 132.3.
3.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2번.
4. 《바하올라 선집》 106.1.
5. 상동, 109.2.
6. 바하올라, 《여성 - 바하올라, 압돌바하, 쇼기 에펜디, 세계정의원 발췌문》, (세계정의원 경전연구국 편집물, 1986) no.53.
7.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11번.
8. 《바하올라 선집》 153.5.
9. 상동, 129.1.
10. 상동, 43.9.
11. 《과리 강연집》 1911년 11월 19일 압돌바하의 강연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06, 2016판) no.32.2.
12.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12번.
13. 상동, 페르시아어 14번.
14. 상동, 아라비아어 15번.
15. 상동, 페르시아어 32번.
16. 바하올라, 《바하이 세계 제 1권, 1925-1926》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26, 1980년쇄).
17. 《거룩한 임의 부르심 - 바하올라의 신비주의 선집》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26) no.2.12.
18. 《신성한 계획의 성한》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1993, 2006판) no.13.6.
19. 《바하올라 선집》 34.8.
20. 《압돌바하 선집》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0, 2015판) no.40.3.
21. 상동, no.40.3.
22. 《세계평화의 선포 - 1912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압돌바하의 강연록》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12) 2문단.
23. 《압돌바하 선집》 no.206.13.
24. 《과리강연집》 no.34.8.
25. 바하올라, 《이리의 자식에게 주는 서한》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88, 2016년쇄) p.139.

# 힘을 신는 대화



## 목적

대화 속에 영적 원칙을  
도입할 수 있는 역량을 획득한다.



## 제 1 장

앞선 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행위에서 맛보는 측량할 수 없는 기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늘 바하올라의 계시에서 발굴한 통찰을 친구나 지인들과 나눌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할 필수적 역량 중의 하나는 의미 있고 힘을 신는 대화에 기여하는 역량입니다. 이 단원과 뒤이어 단원은 이 방면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영적 원리를 대화 속에 도입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의 수준을 어떻게 격상할 수 있는가에 관해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뒤이어 단원에서는 마을과 주변 지역에서 활력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려는 체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어떻게 특정한 주제로 우리가 주위 분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단원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서술문을 접할 것입니다. 정확한 인용의 형태는 아니어도, 모두 압둘바하의 강연과 서한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술문에는 그분께서 직접 사용하신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술 문단을 여러 번 읽고, 등장하는 개념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며, 그룹 속에서 번갈아가며 자신의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여러분은 신앙의 가르침에 의존해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 적절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단원에서도 여러분은 경전 문헌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암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마음과 의욕에 침투하는 특별한 효능이 있으며, 여러분이 자신의 말 속에 그것을 함께 엮을 때 듣는 이에게 심오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 속에 말씀을 인용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것과 자신의 말로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는 중도와 균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균형을 이루려면 경전 문헌의 공부에 상당한 시간과 힘을 쏟을 필요가 있으며,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사고와 느낌을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 제 2 장

우리가 공부할 첫 번째 서술문은 인간은 언제나 교육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존재계에 관해 묵상해 보면,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 전체에 교육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원이 꽃을 피우려면 정원사가 필요합니다. 땅이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농부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황야에 홀로 남겨진다면 동물의 생존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교육을 받으면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교육자의 도움 없이는 어떤 문명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교육, 인간교육, 영성교육이 그것입니다. 물질교육은 육체의 발달을 다룹니다. 인간교육은 문명의 발생과 진보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 사회제도, 복지, 상업, 산업, 예술과 과학, 발견, 경영이 포함됩니다. 영성교육은 거룩한 완전성의 획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말로 교육의 정수인데, 이를 통해 영성, 곧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한 본성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진보 발전하려면 존재의 이 세 차원에서 명백한 권위를 지닌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내게는 뛰어난 지성이 있기에 교육자는 필요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이 자명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나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과 지능만으로 충분하고, 스스로 탁월성에 도달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언제나 완벽한 교육자를 필요로 해 왔습니다. 육체의 섭생과 수양에 관한 지식을 구비하게 도움을 주고, 지식과 발명, 발견 분야에서 진보하도록 영감을 주며, 가장 중요하게는 영적인 삶의 방식을 고취하는 교육자를 말합니다. 여느 인간의 힘으로는 이러한 위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느님의 현시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신 보편 교육자들, 선택받은 위대한 영혼들을 가리킵니다.

1. 위의 서술을 그룹 내에서 여러 번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도록 서로 도우세요. 위에 제시된 개념에 관해 질문을 주고받으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표현하도록



연습합니다.

2. 그런 다음, 그룹 내에서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습한 개념들이 어떻게 대화 속에 도입될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아무 맥락 없이 교육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시작하진 않을 겁니다. 위의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떨 수 있는 대화 유형을 떠올려 보세요. 사회의 도덕적 퇴락,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같은 주제는 어떨까요. 그밖에 친구, 가족, 지인과 나누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관심 갖는 대화 주제 중 여기에 소개된 개념을 나눌 만한 것이 있나요?

---

---

---

---

3. 방금 공부한 개념에 관련된 대화 속에 종종 이러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말하는 교육자들은 누구를 말하나요?”

---

---

---

---

4. 인류는 언제나 교육자를 필요로 한다는 주제에 관해 바하올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몇 개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그 중 적어도 한 개의 인용문을 암기해 보세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바하올라의 말씀 일부를 자신의 이야기 속에 엮어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진보하는 문명을 진척하기 위해 창조되었다.”<sup>1</sup>

“한 분 참되신 하느님께서 - 존귀하신 그분의 영광이여 -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현시하시는 목적은 인간 참 자아의 깊은 광산에 숨겨진 보석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sup>2</sup>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다.

하나는 인류의 자손을 무지의 암흑에서 해방시켜 참된 이해의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의 평화와 평온을 보장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하시기 위함이다.”<sup>3</sup>

“인간은 그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을 권면, 계도, 인도, 교육할 존재를 늘 필요로 한다.”<sup>4</sup>

### 제 3 장

아래 서술문은 하느님의 현시자를 통해서만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해 설명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지인들과 대화할 때 도움을 줍니다.

끝없는 우주를 보십시오. 우주가 저절로 창조될 수 있을까요? 또, 창조된 존재가 창조자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존재계 전체를 관찰해 보면, 보다 낮은 차원의 존재는 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의 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돌과 나무가 아무리 오래 진화한들, 시력과 청력의 힘이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인간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인간 영혼이 지닌 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느님의 본질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나, 그렇다고 인간이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을 결여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성별된 존재들이 인류사에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속성인 완전성, 은혜, 광휘는 하느님의 거룩한 현시자들의 삶과 행적을 통해 인류에게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거울이 태양을 되비춘다는 것은 태양이 고도로부터 하강해, 거울 속에 구현되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신성의 세계에서 이 존재계로 하강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이름, 속성, 완전성에 관해 인간이 앎을 얻고, 배우고, 이해하는 일체는 하느님의 거룩한 현시자들을 가리킵니다.

1. 위의 서술을 여러 번 읽고 그룹 내에서 서로 질문과 답을 한 후, 개념을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2. 여러분이 학습한 개념을 어떻게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할 수 있는지 그룹 내에서 논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느님의 존재, 삶의 목적에 관한 주제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중 이 개념을 소개할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

---

---

3.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방금 공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고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하느님의 현시자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

---

4. 바하올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아래 인용문을 암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주제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분을 알고, 그분 앞에 도달하는 길은 진리의 태양에서 발원한 광명의 존재들을 알고, 그 앞에 도달하는 길 외에 없다.”<sup>5</sup>

“현시자의 지위는 영원토록 하느님의 대리자, 대변자이다. 진실로 그분은 하느님의 완전한 이름의 첫 새벽, 하느님의 존귀한 속성의 동틀 녘이다.”<sup>6</sup>

“하느님의 모든 현시자 한 분 한 분의 행적과 행위, 그들과 관련된 일체의 사실, 그들을 통해 현시될 일체의 일은 빠짐없이 하느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의도하신 것임을 그대는 확신하라.”<sup>7</sup>

## 제 4 장

종교의 단일성은 많은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는 주제입니다. 아래의 개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등<sup>燈</sup>에서 비치든 빛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원에서 피었던 장미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근원에서 나왔든 진리 자체를 탐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등에 집착하면 다른 등에 비친 동일한 빛을 알아보는데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모든 종류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전적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잔이 에고<sup>ego</sup>로만 채워져 있다면, 생명수가 담길 여지가 남아 있겠습니까?

종교는 세계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것은 무제한적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독단적 믿음과 맹목적 모방의 속박에서 해방된 마음으로 모든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을 탐구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동일한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은 하느님에 관한 앎을 인류에게 가져오고, 인류의 진보를 한결같이 추구합니다.

각 종교가 선포되었던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따라 사회적 법률과 규정 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종교는 여전히 본질에서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앙, 앎, 확신, 정의, 경건함, 고결함, 신용, 하느님을 향한 사랑, 자비심을 함양합니다. 아울러, 순결, 초연, 겸손, 관용, 인내, 지조를 가르칩니다. 이러한 인간계 최상의 미덕은 섭리의 때<sup>Dispensation</sup>마다 쇄신됩니다.

불행하게도 편견과 맹목적 모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종교의 근원적 단일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인도하신 하느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고, 진리에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본성상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선입견을 배제하고, 저마다 독자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면 그것은 우리를 동일한 진리로 인도합니다. 종교는 인류를 통합해야 합니다. 종교는 인류 사이에 사랑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가 오히려 적의와 반목의 원인이 된다면, 그러한 종교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1. 이전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에서 위 문단을 여러 번 읽고, 주요 개념에 관해 질문과 답을 나누면서, 자신의 말로 표현하기를 연습하세요.
2. 여러분이 공부한 개념을 대화 속에서 어떻게 엮을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세요.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종교간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진리 탐구의 중요성, 선전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는 힘을 기르기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친구와 이웃, 동료나 지인과 나눈 대화로 돌아가 봅시다. 위의 개념이 유익을 줄 수 있는 대화 주제로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



---



---



---

3. 대화 속에서 위의 개념을 소개한 후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든 종교에 공통적 진리로는 무엇이 있나요?”

---



---



---

4. 아래 바하올라의 저술에서 발췌한 한 두 개의 인용문을 암기해 보세요.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민족이 한 하늘의 원천에서 영감을 얻고, 다 같이 한 분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추호의 의심이 있을 수 없다.”<sup>6</sup>

“우애와 우정의 정신으로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과 사귀라.”<sup>7</sup>

“하느님께서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종교에 활력을 불어 넣으시는 근본 목적은 인류의 유익을 보존하고, 인류의 일체성을 증진하시기 위함이다....”<sup>8</sup>

“하느님의 종교는 사랑과 융합을 위한 것이다. 종교가 반목과 불화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라.”<sup>9</sup>

## 제 5 장

이번에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입니다.

종교와 과학의 진리는 서로 부합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도록 이성의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공히 이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둘은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인간의 지성이 보다 높은 차원으로 오르게 하는 양 날개입니다. 양 날개의 힘을 통해 인류는 삶의 창공으로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만으론 충분치 않습니다.

과학은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하사하신 은총입니다. 과학의 방법을 통해 인간은 물리계의 법칙을 발견하고, 자연이 자신에게 가한 제약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과학의 도구를 통해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한 순간에 방대한 거리를 가로질러 소통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힘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고, 미지의 신비를 꿰뚫는 데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그들의 실질적 진보는 과학적 성취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교는 언제나 진리의 선양자, 지식의 후원자, 인류의 교화자입니다. 종교의 도움이 없을 때 과학은 물질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하며, 그로 인해 인류를 절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종교가 과학에 반<sup>反</sup>할 때 그것은 미신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종교와 과학이 조화를 이루면, 현재 인류에게 불행을 초래하는 술한 증오와 비통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1.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그룹 내에서 위 서술문을 문단 별로 여러 번 읽고 질문하여, 개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2.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종교는 과거의 유물일 뿐이에요.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전부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이때 종교는 미신과 같지 않지만, 과학 없는 종교는 미신이 되며, 또한 종교 없는 과학은 물질주의의 절망을 낳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러한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습니까?

- 
- 
- 
3. 아래 바하올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하나 이상을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자께서 인간에게 하사하신 은총 가운데 다른 모든 것을 앞서는 것은 이해의 선물이다. ... 이 선물로 인해 인간은 모든 진리를 분별할 힘을 얻고, 옳은 길로 인도되며, 창조계의 비밀을 발견하도록 도움 받는다.”<sup>12</sup>

“세계를 관찰하고, 잠시 숙고해 보라. 세계가 그대 앞에 자신의 책을 열어 보여, 조형자<sup>造形者</sup>이시고 만물을 아시는 분, 그대의 주의 빛이 그 안에 새기신 것을 드러내리라.”<sup>13</sup>

“앎은 인간에게 삶의 날개요, 상승의 사다리이다. 앎의 획득은 만인에게 지워진 의무이다.”<sup>14</sup>

## 제 6 장

인류의 일체성은 오늘날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공명을 일으키는 주제로서, 많은 이들이 대화를 환영할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한데 어우러진 정원은 보는 눈을 즐겁게 합니다. 꽃들은 저마다 고유한 자태를 지녔지만 동일한 비로 생기를 얻고, 하나의 태양에서 온기를 얻습니다. 인류도 이와 같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을 지닌 인류 모두는 동일한 근원, 한 분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인류 가족의 다양성은 조화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음색이 어우러져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악처럼 말입니다.

융합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질계에 존재하는 만물의 원소는 인력<sup>引力</sup>의 범칙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인력의 범칙은 특정 원소들이 하나로 결합해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만듭니다. 인력이 사라지면

꽃은 해체되고 사라집니다. 인류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력, 조화, 융합은 인류 사회를 존속시키는 힘인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전 인류가 융합하게 만드는 설계도를 가져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부터 이 거대한 융합의 아우름을 향해 사람들이 이끌려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인종, 민족, 종교, 의견이 사람들 사이에 융합을 촉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류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라는 다양한 빛깔의 장미로 간주하고, 이들과 함께 있음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1. 위의 서술문을 공부한 후 주위에서 전개되는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대화 주제 중에 위의 개념을 나눌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

---

2. 인류 단일성에 관한 대화는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의 융합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그에 공헌할 수 있는지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

---

---

3. 다음 중 한 두 개의 인용문을 암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합의 성막이 세워졌다. 그대들은 서로를 낯선 이로 여기지 말라. 그대들은 한 나무에 열린 열매요, 한 가지에 달린 잎사귀이다.”<sup>15</sup>

“융합의 빛은 얼마나 강력한지 능히 지구 전체를 밝힐 수 있다.”<sup>16</sup>

“융합으로 얼굴을 향해 그 빛이 그대들을 비추게 하라. 그대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한



분 하느님을 위해 그대들 사이의 모든 불화의 원인을 근절하라.”<sup>17</sup>

“우애와 친절, 융합을 증진할 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 인류에게 지워진 의무이다.”<sup>18</sup>

## 제 7 장

아래의 서술문은 모든 사람의 중요한 관심사인 정의<sup>正義</sup>에 관해 논할 때 여러분이 기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개인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음은 인간계의 근본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측면에서 서로 동등함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사는 여전히 정의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다름 아닌 신성한 정의의 원리에 기초해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적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가동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일원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라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괴로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다른 부위들도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위가 고통을 느끼는데 다른 부위가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회는 자기 존속에 필요한 호혜와 균형을 결여했으며, 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할 법률과 원칙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의는 상<sup>償</sup>과 벌<sup>罰</sup>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확립됩니다. 신성한 징계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지니지 않은 이들의 정부는 불의한 법률을 시행할 것입니다. 압제를 방지하려면, 상의 소망과 벌의 두려움이 함께 고취되어야 합니다. 모든 입법자와 행정가는 자신의 정책에 반드시 영적 대가가 뒤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행위의 결과가 사후까지 이어지며, 자신의 판단이 신성한 정의의 저울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통치자는 독재와 압제를 피할 것입니다.

1. 위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학습한 후, 여기서 얻은 통찰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대화 주제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 
- 
- 
2. 인간사에서 불의는 결코 종식될 수 없다고 믿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 
- 
- 
3. 아래 바하올라 문헌에서 발췌한 인용문을 암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인간의 빛은 정의이다. 억압과 압제의 역풍으로 그 빛을 꺼뜨리지 말라. 정의의 목적은 사람들 사이의 융합의 출현이다.”<sup>19</sup>

“정의의 빛에 견줄 수 있는 빛은 어디에도 없다. 세계의 조직과 인류의 평온은 정의에 의존한다.”<sup>20</sup>

“세상을 단련하는 것은 정의이다. 정의는 상과 벌이라는 두 기둥으로 지탱된다. 이 두 기둥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원천이다.”<sup>21</sup>

## 제 8 장

빈부 간 격차가 나날이 첨예하고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서술문은 이 주제에 관해 대화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오늘날 호혜와 조화에 기초한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 중 일부는 최대의 안락과 사치를 누리는 한편, 또 다른 일원은 음식과 쉼터조차 결여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극도로 부유하다면, 또 다른 이들은 극도로 궁핍합니다.

소수가 과도한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 일원이 극심한 궁핍을 겪는 것이 가능

하지 않도록 법률이 제정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조계에는 원래 역량과 등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만 개탄스러운 정도의 풍요가 의욕을 꺾는 가난을 수반하는 현상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부를 소유하는 것이 정당한 만큼, 노동자가 삶의 충분한 수단을 소유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극도의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은 어디선가 압제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안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모든 조건은 신성한 정의를 되비춰야 합니다. 경제 전체의 기초 요건 역시 본성상 성스러운 것이며, 본래 가슴과 영혼의 세계와 직결된 것입니다. 부자는 풍요 속에서 기꺼이 내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공감 능력을 함양해야 합니다. 가슴이 서로에게 단단히 결합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가슴을 지배하게 되면 부자들은 경제적 재조정을 항구적으로 확립하려는 확실한 발걸음을 땀 것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 극도의 비참한 궁핍이 엄존하는 현실 속에 자신들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의하고,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편안을 도모할 부를 정당하게 소유하면서도, 기꺼이 베푸려는 의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위 서술문을 그룹에서 상세하게 공부하세요. 빈부와 관련된 많은 주제가 사회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임금, 주택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위의 개념이 도움을 줄 주제들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까?

---

---

---

---

2. 누군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자가 그러한 조세 법률을 납득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그래서 진심으로 기꺼이 세금을 낼 것이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

---

3. 아래 바하올라 문헌에서 발췌한 인용문 중 한 두 개를 암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 너희는 반드시 실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어, 자신과 타인이 그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라. 만인에게는 기술과 직업에 종사할 의무가 주어져 있으니, 그 안에 부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이해력 있는 이들아!”<sup>22</sup>

“자비를 향해 눈을 돌렸거든, 그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을 버리고 인류에게 이득이 될 것을 붙잡으라. 정의를 향해 눈을 돌렸거든, 그대 자신을 위해 택할 것을 그대의 이웃을 위해 택하라.”<sup>23</sup>

“자신보다 자신의 형제를 더 아끼는 이에게 복이 있다.”<sup>24</sup>

“선한 행위는 잃는 법이 없으며, 이는 영원히 그러하다. 박애의 행위는 행위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물이기 때문이다.”<sup>25</sup>

“... 중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무절제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헤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sup>26</sup>

## 제 9 장

아래 서술문은 여러분이 편견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편견 - 종교적, 인종적, 성<sup>性</sup>적, 민족적, 경제적 - 는 인류의 사회 조직을 와해하고, 하느님의 명령에 반<sup>反</sup>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간 인류는 이러한 편견 가운데 하나로 인해 발발한 전쟁과 학살에 고통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편견들이 상존하는 한, 인류는 평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과 융합의 창조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해 당신의 예언자들을 인류에게 보내셨습니다. 모든 경전과 성서는 문자의 힘으로 사랑을 전하고 있

습니다. 인간 사이의 소외를 낳는 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종교적 편견은 특별히 하느님의 뜻과 명령에 반한 것입니다.

민족적 편견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구는 한 땅이며 한 나라입니다. 국경선과 한계선은 인간의 상상의 산물이지, 하느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두 나라 사이의 강을 국경선이라 부릅니다. 각자 그 강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강은 양 편 모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창조되었으며, 모두를 위한 자연계의 동맥입니다. 삶의 은총이 전쟁과 파괴의 원인으로 변질되도록 부추기는 것은 편협한 상상과 무지입니다.

인종적 편견은 미신일 뿐입니다. 사람의 피부색은 그들의 선조가 오랜 세월 기후와 환경에 적응한 결과였습니다. 성품이야말로 인류에게 주어진 진정한 저울입니다. 탁월성은 인종과 피부색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신앙, 순수한 가슴, 선행, 칭찬받을 만한 언행이 하느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수용의 기준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양성(性)의 구별은 물리계의 요구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성의 구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지성과 지각의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미덕을 획득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성차별에 빌미를 제공하는 상황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은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명백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성한 미덕이 인간의 실재에 반영되고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인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특정 피부색, 민족, 국가가 하느님의 형상에 더 가깝게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극도로 부조리합니까. 부유한 이들이 하느님의 형상에 더 가깝다든지, 사회에서 높은 지위가 하느님께 더 가깝다는 표지인양 암시하는 것은 얼마나 부조리한 생각입니까. 이러한 편견을 철폐하지 않고 인간은 계몽에 이를 수 없으며, 하느님의 왕국이 요구하는 덕목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1. 위의 서술을 공부하고, 편견 배제의 중요성을 요구하는 대화가 맞닥뜨릴 수 있는

몇 가지 도전적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

---

---

---

2.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으면서 혹시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

---

---

3. 여러분이 위의 개념을 소개하는 대화 속에 바하울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다음 인용문 중 어느 하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한 나라요, 인류는 그 국민이다.”<sup>27</sup>

“세상의 어린 모든 나무는 하나의 나무로부터, 모든 물방울은 하나의 바다로부터 출현했으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의 존재에서 기원했다.”<sup>28</sup>

“오늘날 진정한 인간은 인류를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친 사람이다.”<sup>29</sup>

“선한 품성의 빛은 태양의 빛과 광휘를 능가한다.”<sup>30</sup>

“인간은 장신구나 부<sup>富</sup>로 구별되지 않으며, 덕의 실천과 참된 이해력으로 구별된다.”<sup>31</sup>

“하느님께서 그대를 은혜로이 도우시어, 어떤 상황에서나 그대가 미신의 우상을 타파하고, 인간이 만든 공상의 베일을 찢어버리게 하시기를.”<sup>32</sup>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태만한 이는 부질없이 다투고, 형제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자다.”<sup>33</sup>

## 제 10 장

친구들과 대화할 때 성 평등에 관한 아래의 내용에서 주요 개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통해 땅 위에 있는 만물의 실체를 밝히고 드러냅니다. 태양의 힘에 반응해 나무는 때가 되면 잠재했던 열매를 가지 위에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하늘에서 완전한 광휘로 빛나는 진리의 태양은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계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현 시대 양성 평등의 원칙이 온전히 인정되고, 엄연한 사실로 확립된 것은 이러한 이치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하느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점을 가장 명료한 언어로 밝히셨습니다. 과거 양성 간 불평등은 남성이 본래 우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수많은 여성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타헤레(Tahirih)는 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800년대 초, 여성이 남성에게 전적으로 종속되었던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타헤레는 하느님의 새로운 계시의 진리를 인식한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새 「날」이 동트는 새벽을 목격한 그는 양성 평등의 실체가 인식될 시대가 도래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모든 힘을 바쳤습니다. 타헤레의 지식과 논변 앞에 당대 가장 학식 있는 남성들은 입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포악한 왕, 무지하고 교만한 성직자들이 온갖 술수를 동원해 탄압을 가했으나, 그는 한 순간도 진리를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타헤레는 대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무지이고 미신입니다. 오늘날 여성은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동등한 기회와 영향력의 위치를 얻어야 합니다. 영성계에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세계에서든 그것이 현실로 구현되기 전까지 인류의 진정한 진보는 불가능합니다.

1. 그룹 내에서 이 진술을 공부한 뒤 위의 개념들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위의 통찰로부터 유익을 얻을 만한 대화 주제로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최근 관련된 주제로 친구와 이야기한 대화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

---

---

---

2. 여성이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영향력의 위치에 있기 위해, 오늘날 사회에 팽배한 믿음과 태도 가운데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

---

3. 아래의 바하올라의 말씀을 암기하시면 이 주제와 관련한 대화에서 유익하게 쓰일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남성과 여성은 언제나 평등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리라.”<sup>34</sup>

“너희는 우리가 너희 모두를 동일한 흙으로 창조한 까닭을 모르는가? 이는 누구도 자신을 다른 이들 위에 두지 못하게 함이다.”<sup>35</sup>

“이 새로운 날에 거룩한 은총의 손은 모든 차이를 말소하셨다. 하느님의 종과 시녀는 동등하게 간주된다.”<sup>36</sup>

## 제 11 장

마지막으로 공부할 아래 서술문은 보편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교육의 증진은 현 시대의 가장 긴급한 요구 중 하나입니다. 교육을 중점 과제로 삼지 않는 국가는 번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민족이 쇠락하는 가장 큰 원



인은 무지입니다.

교육은 어린 나이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자녀를 교육하고, 그들이 영적, 도덕적 법칙에 따라 자신의 성품을 닦고, 예술과 과학을 습득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교육자는 어머니입니다. 그들이 요람부터 자녀를 돌보며, 사랑의 품에서 앓을 고취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어린이가 교육을 받게 하는 일은 간과해선 안 되는 사안입니다. 부모는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 때 반드시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그럴 수 없다면 공동체가 교육의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은 만인에게 탁월함을 향한 열망을 고취해야 합니다. 누구나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완전성의 이상에 매혹되어, 열정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탁월함을 열망하며, 인간계의 미덕으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실, 충직, 인류에 대한 봉사, 사랑과 정의가 그 예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융합을 증진하고, 학습을 추구하는 비범한 노력으로 구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소임입니다.

1. 위의 서술문을 그룹 내에서 공부한 후, 여러분의 친구들이 교육에 대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의 개념은 그러한 관심에 어떤 함의를 갖습니까?

---

---

---

2. 마하울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아래 인용문 중에 한 두 개를 암기해 보시도록 권합니다.

“사람이 지식이나 기술을 결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런 이는 마치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같다.”<sup>37</sup>

“지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의 교육에 마음을 쏟고, 뜻을 세우라...”<sup>38</sup>

“예술과 공예, 과학은 존재계의 품격을 향상시키며, 그 지위를 높인다.”<sup>39</sup>

“진실로 이르니, 지식은 인간에게 진정한 보물이요, 영광과 은총, 기쁨과 지복, 활력과 만족의 원천이다.”<sup>40</sup>

## 제 12 장

평화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화의 확립은 가장 긴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앞서 소개된 모든 서술문에서 윤곽이 그려진 원칙들을 충분히 숙고해 보았으니, 이제 보편적 평화의 주제를 성찰해 볼 차례입니다.

평화의 많은 부분은 각국의 정부가 전쟁 종식을 위해 어떤 실질적 행보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쟁조정, 군비감축,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은 평화로 나아가는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들 조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앞서 살펴 본 원칙들이 확립되기 전까지 항구적 평화는 뒤따르지 않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실재를 탐구하고, 그 결과 진리가 하나임을 깨닫지 않는 한, 저 해묵은 적대 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과연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진정으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근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현시자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보살피시고, 우리 모두를 단련하십니다. 모든 현시자의 가르침은 동일한 사랑과 우애를 토대로 합니다. 종교 단일성의 진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종교적 분쟁은 종식되지 않으며, 종교의 빛이 평화의 길을 비추지 않을 것입니다. 무지의 먹구름을 흩뜨리고, 평화의 길에 장애물인 모든 편견 하나하나의 허구를 입증하려면 과학과 종교의 조화로운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자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도한 빈부 격차의 문제가 오늘날 지구 모든 곳에서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은 채 과연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까. 인간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입지에서 진보해 가도록 길을 열지 않으면서, 역사에 점철된 폭력이 과연 참된 평화와 번영에 길을 내어줄 수 있을까.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는 이러한 원칙에 부합한 보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를 향한 모든 희망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래 바하올라의 말씀을 암기해 보시길 권합니다.

“인류 일체성이 확립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인류는 결코 안녕과 평화와 안전에 도달할 수 없다.”<sup>41</sup>

## ■ 참고 문헌

1. 《바하올라 선집》 한국바하이출판재단 109.2.
2. 상동, 132.1.
3. 상동, 34.5.
4.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88, 2005년쇄) no.11.1.
5. 바하올라, 《확신의 서》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03, 2018년쇄) 151.
6. 《바하올라 선집》 28.2.
7. 상동, 24.1.
8. 상동, 111.1.
9. 상동, 18.6.
10. 상동, 110.1.
11.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15.4.
12. 《바하올라 선집》 95.1.
13.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9.13.
14. 상동, no.5.13.
15. 《바하올라 선집》 112.1.
16. 상동, 132.3.
17. 상동, 111.1.
18.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7.20.
19. 상동, no.6.25.
20. 바하올라, 쇼기 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06, 2018년쇄) 42문단에서 재인용.
21.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3.23.
22.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80번.
23.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6.19.
24. 상동, no.6.37.
25. 바하올라, 《호꾸꼴라, 하느님의 권리 - 바하올라, 압돌바하의 저술, 쇼기 에펜디, 세계정의원의 서신의 발췌문》 (세계정의원 경전연구국 편집물,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07) no.161.
26. 《바하올라 선집》 118.2.
27. 상동, 117.1.
28. 바하올라, 쇼기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에서 인용, 279문단.
29. 《바하올라 선집》 117.1.
30. 《지성서 이후 게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4.11.
31. 상동, no.6.3.
32. 상동, no.6.3.

33.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5번.
34. 마하올라, 《여성》 편집물에서 인용, no.54.
35.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68번.
36. 마하올라, 《여성》 편집물에서 인용, no.3.
37. 마하올라, 《모든 일에서 탁월성 추구하기》 편집물에서 인용 (세계정의원 경전 연구국 편집물, 런던 바하이출판재단, 1981, 1988쇄) no.5.
38. 《마하올라 선집》 156.2.
39. 《이리의 자식에게 주는 서신》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88, 2016쇄) p.26
40. 《지성서 이후 계시된 바하올라의 성한》 no.5.13.
41. 《마하올라 선집》 131.2.

# 심화 주제



## 목적

친구와 인근 이웃을 방문,  
영적 의미를 띠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역량을 개발한다.



## 제 1 장

앞 단원과 유사하게 이 단원에서는 의미 있고 힘을 신는 대화를 시작하는 역량 개발을 다룹니다. 앞 단원에서는 영적 원칙을 가리켜 보임으로써 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킬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친구와 이웃의 가정을 방문해, 공동체 삶에 필요한 핵심 주제를 함께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전 세계 수많은 마을과 인근 지역에서 우리의 벗들은 그룹을 이루어 정기적 예배 모임, 어린이 영성 교실, 주니어유스 모임, 스터디서클, 유스 캠프,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등의 상호 연관된 여러 활동에 고강도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패턴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의 핵을 이루는 벗들의 수와 역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력을 얻고 있는 공동체 구축의 핵심 구성 요인은 마을과 인근 지역의 보다 많은 가정을 방문하는 체계적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방문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바하이 어린이 교실의 교사라면, 교육 관련 주제를 의논하기 위해 부모를 자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니메이터와 조교 봉사자라면 주니어유스와 청년들의 가정을 방문해, 생애 최대의 가능성을 지닌 이 연령대 사람들의 도전과 기회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을 심화하는 주제에 관해 가정 구성원들과 대화 나누는 일 역시 똑같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방문 활동은 공동체 내 유대의 문화가 출현하게 만드는데 더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제 2 장

이 단원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가상의 동네를 설정하여, 앞서 묘사한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화가 펼쳐질 수 있는지 검토해 보려는 맥락에서입니다.

알레잔드라는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젊은 여성입니다. 그의 오빠 역시 학생으로서, 둘은 부모님과 함께 상상 속 어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남매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최근 한 젊은 부부가 인근으로 이사 왔는데, 이들은 매주 함께 모입니다. 지역 내 활동의 전개 상황에 관해서 함께 협의하고, 기도 모임도 갖습니다. 이 동네에는 약 8,000명의 지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명의 지인이

이 모임에 이따금 참석합니다. 최근 그들은 자신이 관여하는 봉사 활동 뿐 아니라, 공동체 구축의 과정에 관해서도 보다 체계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6개월 전에 어린이교실의 교사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두 명은 17세 청년들로서 주니어유스 그룹의 애니메이터로 봉사 중에 있으며, 그들 자신이 몇 해 전 알레잔드라의 오빠가 동반했던 주니어유스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첫째 유형의 대화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과정을 검토해 보려 합니다. 이 대화는 알레잔드라가 이웃의 산체스씨 부부와 나눈 대화입니다. 부부는 예순이 넘으신 나이로, 동네에 잘 알려졌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부부는 장성해 독립한 자녀를 두었고, 알레잔드라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은 글을 읽으시지만,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는 적었습니다. 부부는 베품의 정신과 순수한 마음을 지녔고, 삶에서 터득한 깊은 지혜로 이웃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두 분은 바하이 가르침에 관해 익히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탐구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최근 갖게 되었습니다. 약 한 주 전, 이들은 알레잔드라의 부모와 대화하던 중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두 분을 환영하는 모임이 계획되어 준비되고 있을 즈음, 알레잔드라가 몇 주간 부부 댁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신앙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는 연속적인 주제에 관해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장부터 알레잔드라의 방문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 대화의 내용을 탐구하고, 아울러 이런 경우 전개되는 대화의 역동에 관해서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제 3 장

알레잔드라는 ‘하느님의 영원한 성약’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산체스씨 부부와 첫 번째 대화를 나누려고 계획합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만물의 창조주는 무비하시고 자존하시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하느님의 본질에 관한 앎에 결코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한자가 무한자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형상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두 상상의 산물일 뿐입니다. 하느님은 인간과 흡사한 존재가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히 우주 전체를 채운 진동도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을 가리키기 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상의 권능’, ‘위대한 영’은 인간 언어의 한계 내에서 그분의 이름과 속성을 표현한 것이며, 그분의 실재를 표현하는데 전적으로 부적합한 것입니다.



《숨겨진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내가 너를 창조하길 원했기에 너를 창조했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네 이름을 부르고, 네 영혼을 생의 정신으로 채우리라.”<sup>1</sup>

여기서 바하올라께서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 곧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탱해 주며, 생의 정신으로 우리 존재를 채우는 그분의 사랑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존재를 감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하이 신앙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 점을 배웁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류와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성약이란 양자, 혹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언약이나 약속을 의미합니다. 가장 은혜로우신 창조주께서는 영원한 성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인류를 결코 인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때가 되면 당신의 현시자 가운데 한 분을 인류 가운데 보내시어, 당신의 뜻과 목적을 나타내십니다.

“현시”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현시자는 인류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특별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분들은 전 인류를 가르치시는 보편 교육자로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류가 어떻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지를 가르치십니다. 역사가 기록한 하느님의 현시자들은 크리슈나, 모세, 조로아스터, 부처, 예수, 모함마드이십니다. 이 시대 인류 가운데 새롭게 출현하신 하느님의 현시자 두 분은 바압과 바하올라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 편에서 영원한 성약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근원적 질문이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성약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모든 종교 경전에서 우리가 그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현시자를 알아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약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이 응답이야말로 우리 삶의 근원적 목적을 가리킵니다. 현시자를 통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단편필수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의 하느님, 제가 증언하오니 주께서 저를 창조하신 것은 제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이 순간에 저의 무력함과 주님의 강력하심을, 그리고 저의 가난함과 주님의 부하심을 증언합니다.

위험에서 도와주시고 자존하시는 주님 밖에 달리 하느님이 없습니다.”<sup>2</sup>

하느님의 현시자들을 통하지 않고 인간이 하느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분들의 지위를 알아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모든 성서와 경전에 예언된 공통된 약속, 곧 지상에 최대의 평화와 정의가 확립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때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은총을 의식할 때 우리의 가슴은 감사로 벅차오르게 됩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 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장 빼어난 은총을 인류 위에 쏟으시고, 가장 강력한 은혜를 모든 피조물 안에 불어넣으신 날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의무는 그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여, 완전한 융합과 평화로 그분의 돌봄과 자애의 나무 그늘에 거하는 것이다.”<sup>3</sup>

더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은 위의 설명을 읽고 그룹의 참여자들과 함께 문단별로 내용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각자 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문을 암기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런 유형의 대화를 나눌 때 문헌에서 발췌한 구절을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연습문제는 여러분이 이 장에서 소개된 개념과 인용문의 의미를 성찰해 보는데 도움을 줍니다.

1. 여러분은 하느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위의 첫 번째 문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

2. 하느님께서 어떤 이유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  
\_\_\_\_\_

3. “성약”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_\_\_\_\_

\_\_\_\_\_

4.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성약으로 인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_\_\_\_\_

\_\_\_\_\_

5.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_\_\_\_\_

\_\_\_\_\_

6. 하느님의 본질을 결코 알 수 없음에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_\_\_\_\_

\_\_\_\_\_

7. “현시”의 뜻은 무엇인가요?

\_\_\_\_\_

\_\_\_\_\_

8. 하느님의 현시자 가운데 몇 분을 언급해 보세요.

\_\_\_\_\_

\_\_\_\_\_

\_\_\_\_\_

9. 우리 인간 편에서 성약에 충실하려면 무엇이 요구되나요?

\_\_\_\_\_

\_\_\_\_\_

10. 아래의 문장을 완성하세요.

가. 이 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_\_\_\_\_ 을 인류에게 쏟아주신 날이다.

나. 이 날은 하느님께서 \_\_\_\_\_ 를 모든 피조물에게 부어주신 날이다.

다. 이 날 우리는 우리의 차이를 \_\_\_\_\_ 하여, 완전한 융합과 평화로 \_\_\_\_\_ .

11. 바하올라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청하셨나요?

---

---

---

## 제 4 장

알렉산드라는 산체스 부부와 나눌 대화 주제에 관해 생각할 뿐 아니라, 그분들과 강한 유대를 형성해 가길 희망합니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편견과 온정주의적 태도, 이 두 가지가 미치는 해악을 익히 알고 있기에 이 두 가지를 강력하게 피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정규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겸손함을 잃지 않을 것이며, 산체스 부부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소개를 구상하면서 그는 이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방문이 지속된다는 점을 떠올립니다. 일련의 개념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부의 반응을 경청하기 위해 중간에 잠시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자.” 알렉산드라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 혼자서 얘기를 계속 이끌어 가면 불안해 질 거야. 그렇게 되면 대화의 형태가 잡히지 않게 돼.” 그는 이 방향으로 방문에 관해 생각을 더 진행해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알렉산드라의 자리에 있다면, 아래 중 마음에 떠 올릴 적절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_\_\_\_\_ 신앙에 관해 산체스 부부를 지도하여, 그분들이 내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확실히 이해하시게 해야 해.

\_\_\_\_\_ 이 훌륭한 분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며, 경전 문헌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야.

\_\_\_\_\_ 방문이 무척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야 할텐데.

\_\_\_\_\_ 인용구들이 그분들에겐 이해하기 너무 어려울 수 있어. 단순한 개념을 활용해야 해. 중요한 건 사랑을 보여드리는 거야.

\_\_\_\_\_ 산체스 부부의 연배를 생각하면, 배움엔 한계가 있어.

\_\_\_\_\_ 그분들과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인용문을 성찰하면서 이분들로부터 통찰을 얻고 싶어. 기대가 많이 된다.

\_\_\_\_\_ 그분들 스스로도 자료를 읽으실 수 있으니까, 주제에 관해 간단히 소개드린 후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인용문을 남겨 드리고 오면 돼.

\_\_\_\_\_ 개념을 소개할 때는 종종 멈추어서 인용문을 함께 공부하고, 내용에 관해 협의할 하겠어.

\_\_\_\_\_ 발표를 끊지 않고 한 번에 전체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마지막에 그분들께 혹시 질문이 있으시냐고 묻고 싶어.

그 밖에 이런 방문을 준비할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은 것,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제 5 장

산체스 부부 가정의 첫 방문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부부는 알레잔드라가 긴장한 것을 알아보고, 따뜻한 환대와 친절로 그녀를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잘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며, 특히 인용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은 마지막에 산체스 부인이 이런 질문으로 알레잔드라를 놀라게 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바하이 공동체에 합류하면 예수님을 잇는 것일까요?” 알레잔드라는 답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표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산체스 부인은 웃으며 그녀를 도왔습니다. “바하이 가르침을 배운 후 예수께 향한 내 사랑이 오히려 커졌

다고 생각해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알레잔드라는 덧붙입니다. “바하올라의 가르침은 하느님은 한 분이심과, 종교의 근원이 하나임과, 전 인류가 하나임을 가르쳐 주시기에 모세, 예수, 크리슈나, 부처, 조로아스터, 무함마드, 이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력해지죠.”

알레잔드라의 방문이 보다 충실한 것이 되게 할 자질과 태도에 대해 그룹 내에서 잠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유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겸손입니다. 전 인류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자질은 하느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그로부터 그분의 피조물 앞에 겸손함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느님을 언급하고, 그분의 현시자들을 언급하는 순간보다 겸손이 더 요구되는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래 바하올라의 말씀을 성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사랑 받는 이들은 어느 곳에 모이든, 누구를 만나든 하느님을 향한 태도와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방식에서 지극한 겸손과 순종을 드러내어 그들 발밑에 있는 먼지 입자까지 그들의 헌신의 깊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경건한 영혼들이 주고받는 대화에는 지극한 권능이 배어 있어, 먼지 입자까지 그 영향으로 진동할 것이다.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은 행여 그들이 밟고 서 있는 땅이 이렇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 “내가 그대보다 더 사랑받아 마땅하리라. 농부가 내 위에 엮은 짐을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는지 보라. 나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분께서 내게 맡기신 은총을 만물에게 무단히 나눠주는 그분의 도구이다. 내게 하사된 이토록 고귀한 영예와, 모든 피조물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는 내 부<sup>ḥ</sup>의 무수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겸손의 척도를 지녔는지 보라. 어떤 절대적인 순종으로 내가 인간의 발에 밟히기로 자청했는지 보라...”<sup>4</sup>

앞서 언급한 대로, 동료 인간 앞에 겸손함은 하느님 앞에 겸손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친구나 이웃의 가정을 방문할 때 우리는 이 동일한 겸손함을 갖고, 기도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대화중 우리는 자주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그분께서 우리 뿐 아니라, 함께 자리한 모든 이들의 마음과 가슴을 밝혀 주시길 간청합니다.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면서 암기할 수 있는 인용문이 기도문 속에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 일부입니다.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소서.”<sup>5</sup>

“주님이시여! 주님의 가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의 빛을 비취 주소서.”<sup>6</sup>

“진정한 이해의 문을 열어 주시고, 믿음의 빛이 눈부시게 빛나게 해 주소서.”<sup>7</sup>

“주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해 주시어 저희가 주님의 빛을 목격하게 하소서!”<sup>8</sup>

“주님을 향해 제가 온전히 돌아섰으며, 저의 가슴을 바쳐 주님께 열렬히 간원하오니, 주님의 이 거룩한 단일성의 주기에 제 마음과 제 입을 주님의 뜻에 반<sup>反</sup>하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sup>9</sup>

## 제 6 장

산체스 부부 댁을 방문해 영원한 성약의 주제에 관해 대화 나눈 후 알레잔드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방문은 바하올라의 삶에 관한 이해를 심화할 기회가 될 거야.” 그때 아래의 발표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1817년 11월 12일 페르시아의 수도 테헤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비상한 성품을 지니셨기에, 부모님은 그분의 위대한 운명을 확신했습니다. 궁정의 총리대신이었던 바하올라의 부친은 아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서 부친은 바하올라께서 망망대해에서 유유히 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육신에서 발산되는 빛이 광대한 바다를 비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칠후 같은 그분의 긴 머리카락은 바다 위에서 모든 방향으로 뻗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떼가 그분 주위로 몰려들어, 각각 한 올의 머리카락 끝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 떼가 붙어 있었건만, 머리카락은 한 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바다 위를 자유로이 헤엄쳐 나가셨으며, 물고기 떼는 그분의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바하올라의 부친은 해몽에 능한 사람을 찾아 꿈의 의미를 물었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끝없는 대양은 존재계를 상징하며, 수많은 물고기 떼는 그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으키실 대혼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란이 그분을 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

분은 전능자의 틀림없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 13세 내지 14세가 되었을 때,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궁정에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22세가 되던 해 부친이 타계하자, 정부는 바하올라께 부친의 직무를 승계 받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사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바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궁정과 대신관료들을 뒤로 하고,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길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자, 병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데 시간을 바치셨으며, 머지않아 정의의 대업의 수호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7세가 되던 해 그분은 특별한 전령으로부터 바압의 저술을 전달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위대한 새 날이 도래했으며, 하느님의 새 현시자께서 인류가 오래토록 기다려 온 대평화, 융합, 정의를 가져오신다는 전언이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즉각 바압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시고, 그분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은 사적 욕망에 눈이 가려 바압의 추종자들을 가장 잔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결한 인품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바하올라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압의 선언 후 팔 년이 조금 지나고, 바압의 순교 후 약 이 년이 지났을 때 바하올라께서는 당시 ‘암흑구덩이’라 불렸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분의 목에 채워진 쇠사슬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분은 머리를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여기서 4개월간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동일한 감옥에서 하느님의 영이 그분의 영혼을 채우셨으며, 그분이 바로 모든 시대에 약속된 분이라는 소식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암흑의 감옥으로부터 전 창조계를 비출 바하올라의 태양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암흑구덩이에 투옥된지 사 개월이 지나, 바하올라께서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과 함께 유형에 처해졌습니다. 한겨울 맹추위 속에 그분과 일행은 페르시아 서쪽 산맥을 따라 당시 오토만 제국의 도시이자,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를 향해 이동했습니다. 예정된 도시를 향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수 백 킬로의 길을 도보로 걸어가며 일행이 감내해야 했던 극심한 고통은 이루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하올라의 명성은 바그다드 전역과 다른 도시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배된 죄수의 문 앞에 몰려들어 축복을



받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곳에서 바하올라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바하올라의 이복동생으로서 그분의 자애로운 보호를 받고 있던 미르자 야흐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르자 야흐야의 음모는 바압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불화를 야기했고, 바하올라께 비통한 슬픔을 안겼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채 그분은 거처를 떠나 쿠르디스탄 산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기도와 명상의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작은 동굴에 거하시면서, 가장 소박한 음식으로 연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이나 배경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민들은 “무명인”이라고 불리는 분, 하느님께로부터 온 지식을 하사받으신 한 위대한 성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자에 대한 소식이 그분의 장남인 압둘바하께 이르자 그분은 성자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임을 즉각 알아보았습니다. 바그다드로 되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청하는 서신이 특별한 전령을 통해 바하올라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를 받아들이셨고, 2년에 걸친 고통스러운 이별의 시간은 끝이났습니다.

바하올라의 부재 동안 바비 커뮤니티는 급속도로 쇠퇴했습니다. 산중에서 돌아오신 후 바그다드에 체류하신 7년 동안, 바하올라께서는 박해와 혼돈 속에 놓인 바압의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정신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위대한 지위를 선언하시기 이전이었지만, 그분의 말씀의 힘과 지혜는 보다 많은 바비들의 충직을 일으켰고, 각계 다방면의 사람들의 존경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슬람의 광신적 성직자들은 바하올라께서 그토록 많은 영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당국에 불만을 제기하여, 끝내 페르시아 정부가 오토만 제국의 몇몇 관료들과 결탁하여 바하올라를 고향으로부터 더 먼 곳, 이번에는 콘스탄티노플로 추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1863년 4월은 바그다드 주민들에게 크나큰 슬픔의 달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게 된 분께서 이제 낯선 곳을 향해 자신들의 도시를 떠나시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떠나시기 전 바하올라께서는 도시 외곽의 한 정원으로 가셔서, 거기 천막을 치시고 12일간 머무시며, 작별 인사를 하러 온 방문객의 행렬을 맞이하셨습니다. 바압의 추종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바하올라와 함께 다음 유배지로 동행할 수 있었으나, 많은 이들은 그분과의 밀접한 친교의 기회를 빼앗긴 채, 뒤에 남겨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 시간이 슬픔의 한 장면으로 남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총의 문이 활짝 열려, 바하올라께서는 당신을 둘러싼 이들에게 당신 자신이 바로 바압께서

예언하셨던 ‘하느님께서 현시하실 분’이심을 비로소 선언하셨습니다. 슬픔은 끝없는 기쁨으로 변했고, 사람들의 가슴은 소망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그들의 영혼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불로 점화되었습니다. 4월 중 이 12일의 기간은 레즈완 축제로 명명되어, 바하올라께서 전 세계를 아우르시는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신 날로 세계 전역에서 기념되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당시 오토만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4개월이 조금 넘는 이 체류 기간에 바하올라의 깊은 지혜와 매력적 기품은 다시금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슬람의 광신적 성직자들은 그분이 콘스탄티노플에 더 오래 체류해선 안 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당국을 설득해 아드리아노플로 추방령을 내리게 했습니다. 4년 반 동안 머무르셨던 아드리아노플에서 바하올라께서는 제왕들과 통치자들 앞으로 서한을 보내시어, 그들이 자국민을 향한 압제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안녕을 돌볼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적들은 가장 잔인한 한 가지 징벌을 고안해 냈습니다. 그분과 가족 일행을 당시 제국 전역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죄수 유형지인 악카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그 감옥도시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그분이 결국 횡사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했고, 하느님께서 직접 작동하신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헛되게 상상했습니다.

악카에서 바하올라께서 겪으신 고난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분은 편의를 위한 모든 수단을 결여하셨고, 밤낮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그러나 수감 조건은 점진적으로 변해 나갔습니다. 악카의 주민과 정부가 자신들의 도시에 유배 온, 이 적은 무리의 바하이들이 결백함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은 그분의 위대한 지위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이 비범한 인물이 보여주는 지혜와 사랑에 매료되었습니다. 9년여 시간이 흐른 후 바하올라와 추종자들 앞에 감옥도시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아드님 압돌바하께서는 아버님이 기거하실 수 있도록 성벽 밖에 품위 있는 한 장소를 구하셨고, 마침내 전원주택 한 채를 대여하여 바하올라께서 13년의 여생 동안 비교적 평화롭고 평온한 삶을 보내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집은 바흐지 저택으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1892년 5월 이 저택에서 최고의 숭고함과 영광스러움 속에 타계하셨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세계 평화와 인류애의 가치를 올리셨고, 하느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적들이 힘을 합해 그분께 대항하였음에도 그분께서는 승리하셨으니, 이는 테헤란의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계셨을 때 하느님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생전에 전하신 메시지는 수천 명의 가슴을 소생 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세계 전역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되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전세계적 대업과 공통 신앙 안에서 인류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바하올라의 생애에 관한 위 이야기는 다소 긴 내용입니다. 아래 연습으로 들어가기 전, 그룹 안에서 단락별로 읽은 후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수월하게 표현해 봅시다. 아래 지도는 바하올라의 유배의 경로를 떠올리고, 각지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1. 위의 이야기를 토대로, 바하올라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



---



---



---



---



---



3. 바하올라께서 겪으신 고난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을 당신의 적들 앞에서 무력한 희생자로 묘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인류를 해방시키려고 스스로 쇠사슬에 묶이기를 수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이야기는 비록 극심한 고난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바하올라의 생애에 관해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교의 도움을 받아 그분의 고난과 승리의 삶에 관한 짧은 이야기 한 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래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 바하올라께서 쇠사슬에 묶이기를 수락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나. 바하올라께서 죄수가 되기를 승낙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다. 바하올라께서 슬픔의 잔을 들이키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라. 바하올라께서는 낮아지기를 감수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마. 바하올라께서 그토록 슬한 고난을 감내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바. 바하올라께서 고난을 감내하신 것은 달리 벗어날 힘이 없어서였나요?

---

사. 바하올라께서 적들 앞에 무력하지 않으셨다면, 왜 고난을 받아들이셨나요?

---

---

## 제 7장

알레잔드라는 산체스 부부의택을 두 번째 방문하며, 첫 방문만큼이나 기뻐합니다. 산체스 부인은 이미 바하올라의 생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의 발표를 기꺼이 경청했고, 그분의 고난의 이야기에 뚜렷이 감동 받았습니다. 산체스 부인은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깊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느님의 현시자들께서는 지도력과 세속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늘 고난을 겪으시네요.” 알레잔드라는 자신이 암기한 인용문을 소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장에 제공된 인용문이었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인류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감내하셨다는 것, 그로써 우리가 모든 억압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세명의 벗들은 그 날의 이야기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레잔드라는 다음 방문의 대화 주제가 압돌바하의 지위에 관한 것이라 마음을 정합니다. 그가 다루려는 요지가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바하올라의 장남인 압돌바하께서는 인류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과거 종교사에서 압돌바하에 비견될 수 있는 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바하올라께서는 타계 전 바하이 공동체를 압돌바하의 돌봄과 보호 하에 맡기셨습니다. 바하올라께서 당신의 최상의 계시 뿐 아니라, 당신의 아드님을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는 결코 온전히 음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는 압돌바하의 지식과 지혜로부터 세계가 인도를 구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압돌바하의 생애와 말씀을 공부하면, 우리는 바하올라의 종제에서 그분의 독특한 지위에 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분의 지위와 관련된 세 가지 측면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압돌바하는 바하올라의 성약의 중심이십니다. 바하올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과 성약을 맺으시어, 그들이 전심으로 성약의 중심을 향하고, 온전히 충직하도록 하셨습니다. 압돌바하께서는 《유훈록》에서 신앙의 수호자로 쇼기 에 펜디를 임명하셨고, 타계 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가 향할 중심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중심은 세계정의원으로서, 이 기구는 바하올라의 명확한 지시, 아울러 압돌바하, 수호자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성약의 힘

에 의해 바하이 커뮤니티는 단일성을 유지했으며, 분파나 해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압돌바하께서는 바하올라의 말씀의 오류 없는 해석자입니다. 바하올라의 계시는 엄청나게 방대하고, 말씀의 내적 의미는 심오한 깊이를 지녔기에, 그분께서는 당신이 친히 영감을 불어넣으실 해석자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무수한 세대에 걸쳐 인류는 압돌바하께서 수많은 서한과 강연의 인증본에서 제공하신 해석을 통해 바하올라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압돌바하에 이어 수호자께서 그분의 타계 후 바하올라의 가르침의 해석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수호자를 마지막으로 해석의 임무는 완수되었으며, 바하올라의 섭리의 때가 종결될 때까지 어느 누구도 바하올라 말씀의 해석에 관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과거 모든 종교는 경전 말씀에 관한 상이한 해석이 일으킨 분열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하올라의 섭리의 시기 동안 그분의 말씀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때, 만인은 압돌바하와 수호자의 해석을 향합니다. 여전히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면, 우리는 세계정의원을 향하고 이 기구에 의미의 명료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침의 의미에 관한 갈등의 여지가 없으며, 신앙의 융합이 보호를 받습니다.

셋째, 압돌바하께서는 당신의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완벽한 모범」입니다. 그분과 같은 완전성의 차원에 이를 수 없다 해도, 우리는 늘 압돌바하를 기억하고 그분의 본을 따르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전 속에서 사랑에 관해 읽을 때 압돌바하를 떠올리면, 우리는 그분의 행적 속에서 사랑과 친절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수, 정의, 정직, 기쁨, 관대함에 관해서도 압돌바하께서 완전성의 수준으로 이러한 자질을 드러내 보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압돌바하의 삶의 표지는 다름 아닌 그분의 봉사에 있습니다. 압돌바하라는 이름은 “바하의 종”이라는 뜻을 지녔는데, 압돌바하께서 당신을 가리키는 여러 호칭 가운데 가장 사랑하신 호칭이었습니다. 아래 압돌바하의 말씀은 봉사에 대한 그분의 절절한 열망을 잘 나타냅니다.

“나의 이름은 압돌바하요, 나의 자격은 압돌바하요, 나의 실체는 압돌바하요, 나에 대한 칭송은 압돌바하입니다. 거룩한 완전성(The Blessed Perfection)이신 분께 예속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내 머리의 빛나는 왕관이며, 전 인류에 대한 봉사가

나의 영원한 종교입니다... 압돌바하를 제외하고 내게 다른 이름, 호칭, 언급, 칭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sup>11</sup>

알레잔드라는 확실히 다음 번 산체스 댁을 방문할 때 그분들에게 이 가장 독특한 인물에 관해 소개하려고 마음을 굳힙니다. 압돌바하의 지위에 관한 그들의 이해는 다가오는 수년에 걸쳐 심화될 것입니다. 봉사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본을 떠올리고, 그분의 말씀을 성찰할 기회를 더 많이 얻으실 것입니다. 앞 단원을 통해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얼마간 익숙해졌고, 그분께서 서한과 공적인 강연에서 밝히신 개념들을 그분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학습했습니다. 그분의 지위에 관한 현 수준의 이해를 다지기 위해, 여러분은 그룹 내 일원과 함께 위의 핵심 요지를 논의하고, 수월하게 말하기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봉사의 길에서 진일보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이 위에 언급된 문단들을 성찰한다면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 제 8 장

산체스 댁을 방문할 때 알렉산드라가 품었던 질문은 그분들이 공동체 구축에 관해 확신을 갖고, 인근 지역에서 이 일의 능동적 주체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논의 주제가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영적 삶의 토대가 계속 강화되어야 하기에 기도, 영혼의 불멸, 하느님의 사랑에 확고함의 주제를 그는 희망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점진적 발달 단계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에 관한 비전을 얻고, 자신들 또한 그 구현에 값진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체스 부부와 압돌바하의 지위에 관해 대화하던 중, 알레잔드라는 다음 번 방문의 논의 주제로 무엇이 적합한지 깨닫습니다. “이분들은 이 신앙의 목적이 사람들을 융합하는 것임을 상당히 명확히 알고 계셔.” “그러니, 이제 융합된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할 것인가의 주제를 탐구할 차례야.”

알레잔드라는 네 번째 방문에서 소규모의 벗들이 인근에서 진행하는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수가 증가해 가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더 큰 융합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요. 공감하신다면 오늘 이 융합의 주제에 관해 함께 탐구해 보아요.”



“우리 공동체 발전에 융합은 정말 중요하지요.” 산체스 부인이 답합니다.

“바하올라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매혹시킨 건, 첫째 융합이었어요.” 산체스씨가 말합니다.

“제가 몇 개념을 선택해서 인용문을 찾아봤어요.” 알레잔드라가 말합니다. “괜찮으시면, 하나씩 함께 검토하고 얘기해 보아요.”

-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융합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목과 언쟁을 피해야 합니다.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하느님의 권능과 그분의 최상의 원조를 통해 이것들을 피하고, 만물을 통합하시고, 만물을 아시며, 가장 지혜로우신 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라.”<sup>12</sup>

- 우리는 공동체의 모든 일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되비추는 종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압돌바하의 말씀입니다.

“완벽한 융합 속에 있도록 하십시오. 서로에게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창조물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의 창조물을 사랑하십시오. 그대가 하느님을 위해 그들을 사랑한다면 결코 화를 내지도, 성급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인류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완전성이 있습니다. 그대가 사람들 자체를 바라본다면 언제나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세계는 완전성의 세계요, 완벽한 자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sup>13</sup>

-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유발된다면, 그 즉시 압돌바하의 다음과 같은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대들 모두 자기 마음속 모든 생각을 사랑과 융합에 집중하도록 진실로 당부합니다. 전쟁의 생각이 일어날 때는 더 강력한 평화의 생각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증오의 생각은 더 강력한 사랑의 생각으로 떨쳐버려야 합니다. 전쟁의 생각은 모든 융합과 안녕, 평안과 만족을 파괴합니다.”

“사랑의 생각에는 형제애와 평화, 우애와 행복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sup>14</sup>

•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압박되어 누군가와 다투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래 바하올라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대들 사이에 조금의 불화라도 생기거든 그대들 면전에 내가 서 있음을 보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그리고 내 명백하고 찬란한 대업을 향한 그대들의 사랑의 증표로 서로의 잘못을 덮어 주어라.”<sup>15</sup>

• 타인의 결점을 덮어주고, 칭찬할 만한 자질에 초점을 맞추며, 험담을 하지 않는 영적 훈련이 불화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에 대해 험담하는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죄를 덮어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압둘바하의 말씀입니다.

“불완전한 눈이 불완전한 것을 봅니다. 결점을 덮어 주는 눈은 영혼의 창조자를 응시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빛시키고, 양육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며 생명과 능력과 시력과 청력을 하사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창조자의 장엄함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만인을 사랑하고, 만인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약자를 보호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배우지 못한 자를 교육해야 합니다.”<sup>16</sup>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내 왕좌의 동무여! 나쁜 말은 듣지 말고, 나쁜 것은 보지 말며, 네 자신을 낮추지 말고, 한숨 쉬지도 울지도 말라. 남이 너에게 나쁜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면, 나쁜 말을 하지 말고, 네 자신의 잘못이 커 보이게 하지 않으려면, 남의 잘못을 과장하지

말라. 또한 네 스스로 비천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면, 누구의 비천도 바라지 말라. 그리하여 덧없는 순간만큼도 못되는 네 생애의 나날을 티 없는 마음과 더러움 없는 가슴, 순결한 생각과 성화된 성품으로 살아야만 네가 자유와 만족을 누리, 이 사멸하는 육신을 뿌리치고 신비의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왕국 안에 끝없이 머물 수 있느니라.”<sup>17</sup>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민자들아! 입은 나를 말하도록 내가 만든 것이니, 비난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 자아의 불길이 너희를 덮치거든 내 피조물의 허물이 아닌 너희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라. 너희 각자는 타인을 알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다.”<sup>18</sup>

• 융합이란 단지 반목과 불화가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랑은 말로 표현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오직 봉사로 표현되게 하고, 매사 협동과 상호 원조의 정신으로 활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융합이 우리 공동체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압돌바하의 말씀입니다.

“... 한 순간도 쉬지 말고, 잠시도 평안을 구하지 마십시오. 가슴과 영혼을 다해 벗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봉사를 바치고, 단 하나의 빛나는 가슴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은총이며, 압돌바하의 이마를 환히 비추는 것입니다. 그대는 나의 동반자가 되어 나와 어울리십시오.”<sup>19</sup>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협동과 호혜입니다. 사람들 간에 우정과 결속의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건설과 성취의 힘이 더 강력히 나타날 것입니다.”<sup>20</sup>

•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의 열쇠는 모든 사안에 관해 솔직하고 애정 어린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각이 하나로 통합되고, 최선의 전체적인 활동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사고의 융합을 성취할 수 있고, 융합된 사고와 관점으로 공동체 발전에 관한 효과적인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돌바

함께서는 협의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하십니다.

“함께 협의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요건은 순수한 동기, 빛나는 정신, 하느님 외에 일체에 초연함, 그분의 거룩한 향기에 매혹됨, 그분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에서 겸허하고 겸손함, 역경을 견디는 인내와 오래 참음, 그분의 높은 문턱에 올리는 봉사입니다. 그들이 은혜로운 도움으로 이러한 속성을 획득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하의 왕국으로부터 그들에게 승리가 하사될 것입니다.”<sup>21</sup>

• 생각의 융합은 활동의 융합으로 표현되기 전까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융합된 활동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공동체가 융합된 활동을 계획하면,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이 최대한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전체의 힘은 배가되고, 설령 우리가 적은 수의 사람들이라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막강한 조직이 해 낼 수 없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압둘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고 경건한 영혼들이 천상의 힘을 끌어내어, 영의 그런 자질을 갖추고 일어나, 단합된 상태에서 줄지어 행진하면, 하나의 영혼은 저마다 천 명의 힘을 지닐 것이요, 저 거대한 대양의 넘실대는 파도는 흡사 천상의 회합이 이끄는 대대와 같을 것입니다.”<sup>22</sup>

그룹 내에서 위에 제시된 개념들을 여러 번 숙독한 후, 이 장에 소개된 인용문을 성찰하도록 도와 줄 아래의 문제들을 완성하십시오.

1. 다음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가.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_\_\_\_\_와 반목,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나.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_\_\_\_\_,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_\_\_\_\_도 없다.

라.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이간,  
\_\_\_\_\_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마.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_\_\_\_\_과 이간,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바.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_\_\_\_\_,  
무관심보다 이 대업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 오늘날 하느님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의 불화와 반목, 언쟁과 이간, 무관심보  
다 이 \_\_\_\_\_에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2. 두 번째 인용문에서 압둘바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 우리는 완벽한 \_\_\_\_\_ 속에 있어야 합니다.

나. 우리는 \_\_\_\_\_에게 절대 \_\_\_\_\_를 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_\_\_\_\_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 우리가 \_\_\_\_\_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_\_\_\_\_거나, \_\_\_\_\_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 인류는 \_\_\_\_\_합니다.

바. 우리의 눈이 \_\_\_\_\_자체를 향한다면 우리는 항상 \_\_\_\_\_할 것입니다.

사. 우리의 눈이 \_\_\_\_\_을 향한다면 우리는 늘 사람들을 \_\_\_\_\_하고  
그들에게 \_\_\_\_\_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인용구에서 압둘바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 모든 생각들을 \_\_\_\_\_과 \_\_\_\_\_에 집중해야 합

니다.

나. 전쟁의 생각이 일어날 때는 \_\_\_\_\_ 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다. 증오의 생각은 \_\_\_\_\_ 으로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라. 전쟁의 생각은 모든 \_\_\_\_\_ 과 \_\_\_\_\_ , \_\_\_\_\_ 과 \_\_\_\_\_ 을 파괴합니다.

마. 사랑의 생각은 \_\_\_\_\_ 와 \_\_\_\_\_ , \_\_\_\_\_ 와 \_\_\_\_\_ 을 만들어 냅니다.

4. 공동체 내 여러분과 누군가 사이에 불화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

5. 공동체의 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훈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

---

6. 다음 중 융합에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타인의 단점을 바라본다.
- \_\_\_\_\_ 타인의 결점을 덮어준다.
- \_\_\_\_\_ 타인의 단점을 친구에게 언급한다.
- \_\_\_\_\_ 타인이 나쁘게 보이도록 이야기를 과장하고 각색한다.
- \_\_\_\_\_ 타인의 결점을 곰곰이 생각한다.

7. 왜 우리는 똑 같은 실수에 대해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

---

---

8. 사람들이 누군가에 관해 험담을 하는 상황에서 융합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

9. 누군가에 대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누군  
가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 다른 이들 앞에서 비판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

10. 누군가에 대해 가십, 험담, 비판하는 행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

---

---

---

11. 가십, 험담, 끝없는 비판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

---

---

12.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습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

---

---

13. 만약 우리가 우리 옆에 당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

---

14. 아이들 앞에서 누군가에 대해 험담 한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

15. 가십과 험담의 경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

---

16. 바하올라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자아의 불길이 너희를 덮치거든 \_\_\_\_\_이 아닌 \_\_\_\_\_을. 너희 각자는 \_\_\_\_\_을 알기보다 \_\_\_\_\_을 더 잘 알고 있다.”

17.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

---

18. 융합과 사랑에 관해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한 순간도 \_\_\_\_\_ 말고, 잠시도 \_\_\_\_\_을 \_\_\_\_\_을 다해 벗들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 \_\_\_\_\_, 단 하나의 빛나는 가슴에 \_\_\_\_\_도록 \_\_\_\_\_하십시오.”

19.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_\_\_\_\_과 \_\_\_\_\_입니다. 사람들 간에 \_\_\_\_\_과 \_\_\_\_\_의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_\_\_\_\_과 \_\_\_\_\_의 힘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20. 성공적인 공동체 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입니까?

---

21. 압돌바하께서는 협의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협의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제일의 요건은 \_\_\_\_\_, \_\_\_\_\_, \_\_\_\_\_,



\_\_\_\_\_, 그분께 사랑받는 이들 사이에서 \_\_\_\_\_, 역경을 견디는 \_\_\_\_\_, 그분의 높은 문턱에 올리는 \_\_\_\_\_입니다. 그들이 은혜로운 도움으로 이러한 속성을 획득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하의 왕국으로부터 그들에게 \_\_\_\_\_가 \_\_\_\_\_될 것입니다.”

22. 융합 속에서 일할 때 발휘되는 힘에 관하여, 압돌바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고 경건한 영혼들이 \_\_\_\_\_을 끌어내어, \_\_\_\_\_을 갖추고 일어나, \_\_\_\_\_속에서 줄지어 행진하면 \_\_\_\_\_영혼은 저마다 \_\_\_\_\_의 힘을 지닐 것이요, 저 거대한 대양의 넘실대는 파도는 흡사 \_\_\_\_\_와 같을 것입니다.”

## 제 9장

산체스 부부 덕을 네 번째로 방문한 날, 알레잔드라는 손녀 베아트리스를 만나 기뻐했습니다. 베아트리스는 조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인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산체스 부부는 융합의 주제에 관심을 보였고,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즈음 산체스 부인이 커피와 케이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알레잔드와 베아트리스는 더 사귄 수 있었습니다. 인근의 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위해, 둘은 다음 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베아트리스가 연수원 과정을 공부하는 데 관심을 보일 것 같아.” 알레잔드라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초기 몇 개 과정을 이수하도록 내가 도울 수 있어. 베아트리스가 주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실을 개설하길 원할 수도 있고, 나를 도와서 인근의 주니어유스 그룹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거야. 5권까지 공부를 진행하는 동안, 그룹에 관해 책임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애니메이터로 봉사할 준비를 갖추 수 있겠지.” 알레잔드라는 청년들이 함께 자리한 몇몇 모임에 참석해, 관련된 주제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 나누었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연수원 과정에 참여토록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이튿날 베아트리스와의 대화에서도 유사한 순서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대화가 시작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 세계가 더 나은 곳이 되길 원하지요.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가 확립되고, 인류가 한 가족으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러한 미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중 더 많은 사람이 보다 나은 세계를 위해 노력을 바칠

때 구축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가슴 저 깊은 곳에는 공동체에 봉사하려는 열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동선을 위한 이기심 없는 봉사를 착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죠.

인류에 대한 봉사를 머릿속에 이런 심상으로 떠올려 보아요. 우리 모두가 봉사의 길을 함께 걷고 있어요. 이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요. 우리 각자 그 길에 들어설지 스스로 선택하고, 각자의 보폭에 맞게 앞으로 걸어 나아가지요. 우리는 이 길을 혼자 걷지 않아요. 함께 배우고, 서로를 동반합니다. 이 길 위에서 떼는 모든 걸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선사하고, 우리가 공들인 모든 노력은 신성한 확증을 끌어당기지요.

베아트리스는 이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이 간단한 발표가 있는 후에 생기 있는 대화가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기 전 잠시 멈추어, 두 친구 사이에 일어난 대화의 성격에 관해 성찰해 봅시다. 알레잔드라는 베아트리스를 연수원 과정에 초대하고자 실질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알레잔드라는 베아트리스에게 연수원이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으니 한 번 참여해 보라고 초대하는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

---

---

---

---

---

---

---

## 제 10장

알레잔드라와 베아트리스 사이의 대화는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엔 알레잔드라가 새로운 친구들과 나눈 부가적인 개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가 이 긴 발표를 쉽 없이 진행할 것이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두 시간의 대화는 상당 부분은 아래 개념을 두 사람이 함께 숙고해 보는데 할애되었습니다.

우리는 젊고, 에너지 있고, 상당한 열정이 있어. 사람들은 우리가 진지한 근심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 반대야. 우리는 인류가 처한 곤경을 염려하고, 사회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길 보기 원해. 우리는 또 각자 자신의 삶도 생각해야 하지. 교육, 일, 친구, 가족 말이야. 매년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이 주어져.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 내 어깨에 지워진 모든 책임을 떠 올리면 상당히 압도되곤 해. 그럴 때 난 바하이 문헌에서 읽고 암기한 이 인용구를 떠올려. “인간의 생애에도 봄철이 있으니, 그 시기에 진실로 놀라운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청년은 힘과 활력으로 두드러진, 생의 가장 빼어난 시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우리 공동체와 같은 전 세계 수많은 공동체의 청년들이 깨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지적, 영적 성장을 책임지고, 아울러 사회의 변형에 공헌하는 이중의 목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두 측면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것이야. 우리가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면 다른 이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고, 서로를 도움으로써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고, 여러 자질을 개발할 수 있어.

이 대목에서 봉사의 길을 걷는다는 개념이 중요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무언가를 추가로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더욱 의미를 띠도록 만드는 걸 의미해. 공동체에 봉사하면 우리가 받는 교육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명료해지고, 가족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이 개발될 수 있어. 우리 사이의 우정을 한층 더 단단하게 해 줘.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줘.

우리 자신의 영적, 지적 성장을 생각할 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많은 힘의

작용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 앎, 정의, 사랑이 지닌 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나침반이 되어 줘. 우리는 스스로 그 힘과 한 방향 정렬을 이루는 법을 학습해야 해. 이와 상반되게 작용하는 힘도 있어. 물질주의나 자기중심성의 힘은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기에, 우리는 이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해. 우리는 탁월성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그런 노력이 신성한 확증을 통해 축복을 끌어당긴다는 믿음을 지녀야 해.

사회 변형을 위한 우리의 공헌에 관해 생각해 보자. 폭력, 가난, 고통으로 점철된 세상이 평화, 번영, 조화의 세상으로 변모하게 만드는 과정 말이야. 이때 우리는 물질적 진보와 영적 진보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해. 모든 사람이 물질적 진보의 혜택을 보게 하는 일은 영적 진보 없이 일어날 수 없어. 이 둘이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세계의 발전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암기한 인용문 하나를 소개할게. “물질문명이 등<sup>燈</sup>이라면 정신문명은 빛이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융합하면, 빛과 등 두 가지를 모두 얻는 것이다. 그것이 비로소 완벽한 결실이다.”

우리는 특히 어린이와 주니어유스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이 앎, 기술, 영적 자질을 획득하게 도울 수 있어. 우리는 또 공동체의 융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 공동체 진보에 공헌하려는 개인, 가정, 조직은 반드시 함께 협력해야 해. 공동의 비전과 목적을 세우고, 갈등을 빚는 방식을 떠나보내야 해.

그래서 청년인 우리가 타인과 조화로운 교류의 습관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야.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어야 해. 공동의 일에서 서로를 동반하고, 서로의 기여를 받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서로의 강점을 알아보고, 서로에게 유용한 조언을 구하고, 또 제공하고, 서로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거야. 봉사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실천적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을 성찰해야 하고, 함께 협의하고 공부해야 해.

지난 수십 년 사이 바하이 공동체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배움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특별한 기관을 확립하는데 성공했어. 우리는 그걸 연수원이라 불러. 연수원은 우리가 공동체에 봉사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제공해. 이 과정을 공부해 나가면, 우린 봉사의 길에서 진보하는데 필요한 영적 통찰과 실질적인 기술을 얻을 수 있어. 이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면, 복잡성이 증대되는 봉사 행위를 수행하는 역량이 자라나게 되어. 내내 우리는 보다 경험이 많은 이들의 동반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역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이들

을 동반하게 되지. 그런데 첫 시작부터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배움과 공동체 봉사의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개인과 사회의 변형을 위한 주체인 거야.

“주체가 된다는 것”, 그것은 스스로 신중하게 행동을 선택하고, 자신이 기울이는 노력에 끈기를 발휘하고, 걸음걸음마다 앎을 획득하고, 그것을 실제 적용할 의지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해. 주체란 단지 수동적으로 혜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진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는 사람을 말해. 주체가 되기 위해 우리는 창의적인 동시에 규율 있는 주도력을 발휘하는 법을 학습해야 해. 연수원 과정은 공동체 구축의 주체가 되는 역량을 향상하도록 도움을 줘.

잠시 멈추어 위 문단의 개념을 성찰해 봅시다. 이미 언급된 것처럼, 알렉산드라는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발표를 단순히 이어 가기보다, 베아트리스가 단계마다 각 개념에 관해 스스로 생각해 보고, 그 또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룹 내에서 문단 별로 논의하고, 스스로 그 개념을 표현하기를 학습하세요. 그런 다음,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드라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베아트리스에게 루히 연수원 과정 일부를 소개한 후, 그를 과정에 초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대화가 발전했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이 그의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간단히 나눠 봅시다. 연수원 과정 1권과 2권이 요청하는 봉사 활동을 어떻게 묘사해 보겠습니까? 후속 과정의 봉사 활동에 관해서도 간단한 언급한다면 베아트리스가 미래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봉사에 관해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교육의 교사나, 주니어유스 그룹의 애니메이터로서의 봉사 활동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래에 알렉산드라가 베아트리스를 1권 공부에 초대하는데 덧붙일 수 있는 소개와 함께, 이 두 가지 봉사활동에 관해서도 몇 가지 말을 적어볼 수 있습니다.

---

---

---

---

---

---

---

---

---

---





## 제 12장

알레잔드라의 산체스씨 댁 방문은 오는 몇 주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함께 성찰하고, 그로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몇 가지 주제에 관해 논의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영혼의 삶, 영적 자질의 개발, 하느님의 법과 명을 따름, 그분의 사랑에 확고함과 같은 주제입니다. 한 번은 행정질서와 기구, 특히 지성회와 국성회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모든 방문에서 다룰만한 모든 주제를 망라할 필요는 없습디만, 이 가상의 연속 방문에서 참여자들이 종종 제기하는 두 가지 질문을 다뤄 봅시다. 하나는 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임의 성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적 자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대표적 모임인 19일 축제를 다루고, 다음 장에서는 재정에 관한 사안을 다루겠습니다.

아래의 요지는 19일 축제에 관한 대화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 바하이 공동체 일원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 공부, 특별한 날의 경축, 공동체 대소사에 관한 협의, 사회봉사에 관한 협의, 활동계획 추진에 관한 논의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하올라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생명과 내 대업을 두고 이르니! 어디든 하느님의 벗들이 들어서고, 주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울리는 곳에는 진정한 신자들의 영혼, 총애 받는 모든 천사들이 그 들레를 둘러쌀 것이다.”<sup>23</sup>

• 벗들과 함께 한 모임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낭송되고, 이를 경청하는 것은 많은 이의 가슴에 기쁨을 불러일으키며, 융합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바하올라께서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벗들은 어느 땅에 거하든지 함께 모임을 갖고, 지혜롭고 호소력 있게 말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인간 가슴에 사랑의 불이 붙고, 타오르게 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sup>24</sup>

압돌바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쓰셨습니다.



“모임을 열고 천상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낭송하여, 그 나라가 진리의 빛으로 밝혀지고, 그 땅이 성령의 확증으로 향기로운 낙원이 되게 하십시오. 이 시대는 가장 영광되신 주의 세기요, 인류의 단일성을 노래하는 선율이 동양과 서양 전역의 모든 귀에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sup>25</sup>

• 바하이 모임 중 19일 축제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하이력에서 한 달은 19일이며, 일 년은 총 19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하이들은 지역 별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갖습니다. 바하올라의 아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비록 대접할 것이 물 밖에 없을지라도 그대들은 한 달에 한 번 축제를 베풀라. 하느님께서 지상과 천상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류의 가슴을 하나로 엮기를 정하셨기 때문이다.”<sup>26</sup>

• 19일 축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시간으로, 기도문을 낭송하고 경전의 성구를 낭독합니다. 둘째는 행정 사안을 다루는 시간으로, 공동체의 대소사에 관해 협의합니다. 셋째는 친교입니다.

• 압돌바하의 아래 말씀을 통해 19일 축제에서 예배부의 중요성을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계신 아름다운 분의 충성스런 종들이여! 모든 주기와 종제에서 축제는 늘 총애와 사랑을 받았으며, 하느님의 연인들을 위해 식탁을 차리는 일은 칭송할 만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 그러하니, 이 비길 데 없는 섭리의 때, 이 가장 관대한 시대에 그러한 축제는 하느님을 경배하고 찬미하는 모임으로 진정하게 섰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제에서 성스러운 말씀과 천상의 성구가 울려 퍼지며, 여러 가슴이 소생하고 황홀경을 맞볼 것입니다.”<sup>27</sup>

• 벗들은 19일 축제의 행정부에서 가깝고 먼 지역의 공동체 활동 상황을 듣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진행되는 신앙의 업무에 관해 협의하며, 사회의 안녕에 기여할 바를 협의하고, 세계정의원의 인도를 친숙히 접할 시간을 가지며, 자신들이 고안한 계획의 추진을 성찰하고, 신앙의 기구에 건설적 제안을 합니다. 19일 축제에서는 협회가 매우 중요한데, 이 협의의 수단을 통해 개개인은 전 세계 바하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 19일 축제의 사교부는 동료애와 환대의 시간입니다. 음악을 활용하고, 힘을 신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들이 발표를 합니다. 품위 있으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문화 활동을 주의 깊게 선별하면, 축제의 사교부가 활력을 띵니다.

• 19일 축제는 바하이 신앙의 행정질서를 구성하는 매우 독특한 요소입니다. 19일 축제는 공동체 생활을 구성하는 예배, 행정, 친교의 요소를 하나로 엮습니다. 이 세 개의 측면은 동등하게 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이 얼마나 균형 있게 배분되는가에 19일 축제의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는 1989년 8월, 전 세계에서 바하올라를 따르는 이들에게 보낸 세계정의원의 서신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바하올라의 세계질서는 인류 사회의 모든 단위를 포용합니다. 영적, 행정적, 사회적 삶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며, 인류의 다양한 표현력이 신문명 건설을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엽니다. 19일 축제는 사회의 근간에서 이 모든 차원을 아우릅니다. 이는 마을, 읍, 도시 어디서나 모든 바하의 사람을 포용하는 하나의 기구입니다. 19일 축제는 융합을 촉진하고, 진보를 보장하며, 기쁨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띵니다.”<sup>28</sup>

• 19일 축제처럼 중요한 행사는 결코 성급히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각 개인은 축제 참석에 앞서 기도와 성찰을 통해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축제 중에는 전심을 다해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부에서 낭독을 하든, 경청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보고를 하든, 안내를 받든, 건의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의 주최자로서 봉사 하든, 축제의 참석자로서 기쁘고 빛나는 태도로 환대에 응하든 마찬가지입니다. 19일 축제에 관한 동일한 서신에서 세계정의원은 아래와 같이 언급했습니다.

“적절한 성구의 선택, 성구 낭송자의 사전 지명, 예배부의 정중함 등이 축제를 준비할 때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실내든 실외든 축제가 진행되는 환경은 축제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청결함,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공간 배치, 이 모든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간 엄수 또한 준비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축제의 성공은 상당 부분 질 높은 준비와 개인 신자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경애하는 스승께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셨습니다. ‘19일 축제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여, 주님께 사랑받는 이들과 자비로우신 분의 시종들이 얼굴을 왕국으로 향하고, 찬교를 노래하며, 하느님께 간청 드리고, 서로에게 즐겁게 이끌리며, 순결함과 성스러움을 기르고, 하느님을 경외하여 열정과 이기심에 맞서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원소로 이루어진 세계로부터 초탈하여, 영의 타오름에 깊이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sup>29</sup>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위에 제시된 개념을 여러 번 읽고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나눠 보세요. 아래 질문은 이 장에 소개된 인용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1. 바하올라께서는 주를 찬미하고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든 장소의 특징에 관해 어떤 확신을 주셨습니까?

---



---



---

2.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바하올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들은 어느 땅에 거하든지 함께 모임을 갖고, \_\_\_\_\_, \_\_\_\_\_ 있게 말하고, \_\_\_\_\_을 읽어야 한다. \_\_\_\_\_, \_\_\_\_\_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3. 위의 세 번째 인용문에서 압돌바하께서는 우리에게 “모임을 열고 천상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낭송할 것”을 권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나라가 \_\_\_\_\_.

우리가 거하는 땅이 \_\_\_\_\_.

---

4. 바하이력은 몇 개 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_\_\_\_\_

5. 한 달은 며칠입니까? \_\_\_\_\_

6. 바하이들 사이에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특별한 모임은 무엇입니까?

---

7. 19일축제의 세 부분은 각각 무엇입니까?

---

---

8. 19일축제의 각 부는 정해진 순서를 따르나요?

---

9. 축제의 예배부는 어떤 목적을 띠니까?

---

---

10. 축제의 행정부는 어떤 목적을 띠니까?

---

---

11. 축제의 사교부는 어떤 목적을 띠니까?

---

---

12. 다음 중 축제의 행정부에서 협의하기에 적절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 \_\_\_\_\_ 공동체 활동의 재정적 필요
- \_\_\_\_\_ 국가 축구대표팀의 실적
- \_\_\_\_\_ 공동체 내 어느 두 사람의 의견 불일치의 해결
- \_\_\_\_\_ 바하이 어린이교실의 진보
- \_\_\_\_\_ 공동체 일원이 지난 주 공부했던 성구의 의미
- \_\_\_\_\_ 주니어유스 프로그램의 활력
- \_\_\_\_\_ 청년에게 열리는 구직의 기회
- \_\_\_\_\_ 복잡성을 띠기 시작한 주니어유스 그룹 봉사 프로젝트에 제공할 공동체 지원
- \_\_\_\_\_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주니어유스의 부모 방문
- \_\_\_\_\_ 공동체의 예배 성격의 강화
- \_\_\_\_\_ 텔레비전 쇼의 방영 스케줄
- \_\_\_\_\_ 즐겁고 규율 있는 스터디 서클 분위기 촉진법에 관한 통찰 나눔
- \_\_\_\_\_ 다가오는 성일의 기념
- \_\_\_\_\_ 공동체 구축 과정 속에서 발굴한 사회 활동의 주도력

13. 그룹 내에서 논의해 봅시다. 축제의 세 부분 사이의 균형은 왜 중요한가요?

---

---

---

---

14. 아래 두 질문에 관해 논의하세요.

가. 여러분이 축제에서 주최자로 봉사한다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나. 여러분이 축제에 참석자로서 참석한다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 제 13장

신앙에 관한 대화에서 종종 제기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하이 공동체는 재정적 필요를 어떻게 충족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는 여러분이 그 질문에 답할 때 도움을 줄 몇 개 요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바하이 공동체가 물질적 필요에 부응하여 활용하는 수단을 바하이 기금이라 합니다. 지역, 국가, 대륙, 국제 차원의 다양한 차원에서 신앙의 기구들이 기금을 운영합니다. 바하이들은 신앙을 촉진하는 노력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믿기에, 바하이 기금은 공동체의 일원으로부터만 수령합니다.
- 기금에 헌금하는 것은 자발적 행위입니다. 헌금은 개인과 기구 간의 사안이기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과 액수는 공표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일원에게 헌금에 관한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기구는 일원들에게 일반적으로 헌금을 호소하고, 기금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키며, 필요 사항을 발표합니다. 공동체가 스스로 헌금 목표를 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헌금액을 할당하거나, 특정 액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기금에 관한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얼마를 헌금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개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문명은 공히 물질적, 영적으로 번영하는 문명입니다. 부<sup>富</sup>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방식으로 부를 획득해야 하며, 인류 공공선을 위해 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수가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소수가 극도의 부를 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며, 모든 세계의 주이신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과 친족에게 베푸는 사람이다.”<sup>30</sup>

“...너희는 반드시 실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어, 너희 자신과 타인이 그로부터 유익을 얻게 해야 한다. 만인은 저마다 기술과 직업에 종사함이 마땅하니, 그 속에 부의 비밀이 있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여!”<sup>31</sup>

압둘바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sup>富</sup>가 가장 큰 칭송을 받는 것은 인구 전체가 부유할 때입니다. 그런데 소수가 과도한 부를 소유한 채 나머지 사람들이 궁핍하고, 그 부로부터 어떤 결실도,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소유자의 부채일 뿐입니다.”<sup>32</sup>

- 불의와 불행에서 해방된 사회를 건설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베품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 모두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 뭔가를 베풀어야 합니다. 진정한 번영은 오직 베품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관대함은 인간 영혼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관대함은 우리가 처한 물질적 여건과 무관한 것입니다. 바하올라께서 《숨겨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품과 너그러움은 나의 속성이니, 나의 미덕으로 스스로를 단장하는 이는 형통하다.”<sup>33</sup>

- 우리가 소유한 어떤 부<sup>富</sup>도 그 진정한 근원은 하느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계의 수단을 얻고, 나날이 발전하게 만드시는 근원은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기금에 현금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의 일부를 그분의 대업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하이들에게 헌금은 비단 관대한 베품의 행위를 넘어, 영적 은사이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중대한 책임입니다. 수호자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비우고, 보이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다시 채워지는 분수, 혹은 샘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궁핍에 대한 염려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부, 모든 선의 근원이 베푸시는 무진의 은사에 의존하면서, 우리의 동료에게 도움이 될 것을 부단히 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의 비밀입니다.”<sup>34</sup>

연수원 상위 과정 중에는 물질적 수단의 주제를 다루는 별도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 개괄적으로 소개된 개념을 한층 깊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은 이제껏 그랬던 것처럼 요지를 파악하고, 개념을 자연스럽게 수월하게 표현하기를 학습합니다.

1. 위의 인용문을 토대로 아래 빈 칸을 채워 보세요.

- 가.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소명의식으로 \_\_\_\_\_를 유지하며, \_\_\_\_\_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 나. 우리는 \_\_\_\_\_고 \_\_\_\_\_한 결실을 맺어, 그로부터 우리 자신과 타인이 \_\_\_\_\_.
- 다. 우리 각자는 \_\_\_\_\_과 \_\_\_\_\_에 \_\_\_\_\_해야 하니, 그 속에 \_\_\_\_\_의 \_\_\_\_\_이 있습니다.
- 라. 압돌바하 말씀에 의하면, 부\_\_\_\_\_는 \_\_\_\_\_가 부유할 때, \_\_\_\_\_을 받습니다.
- 마. \_\_\_\_\_가 지나친 \_\_\_\_\_를 소유한 상태에서 \_\_\_\_\_이 \_\_\_\_\_하고, 그 \_\_\_\_\_로부터 어떤 \_\_\_\_\_이나 \_\_\_\_\_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_\_\_\_\_의 \_\_\_\_\_일 뿐입니다.
- 바. 바하올라의 말씀입니다. \_\_\_\_\_과 \_\_\_\_\_은 나의 속성이니, 나의 \_\_\_\_\_으로 스스로를 \_\_\_\_\_하는 이는 형통하다.





## 제 14장

활동이 왕성한 마을이나 인근에서 전개되는 대화에 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금껏 대학생 알레잔드라의 노력을 따라 왔습니다. 몇 주에 걸친 연속 방문에서 그는 산체스 맥 부부와 함께 신앙에 대한 지식을 심화하고, 그들이 수용한 가르침에 스스로 한층 충실하도록 도울 몇 가지 주제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 맥의 손녀 베아트리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대화가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청년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공헌할 방법을 배우길 열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 연습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런 대화를 지속할 때 관련 주제의 지식을 증대하는 것 외에도, 특정 영적 자질, 태도,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의 주제를 탐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수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할 때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교실 교육자 및 주니어유스 그룹의 애니메이터 양성은 각각 3권과 5권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두 연령대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익숙한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주니어유스의 가정을 방문할 때 대화의 토대가 될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 베아트리스가 현재 시점에 2권을 공부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알레잔드라는 몇 명의 주니어유스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을 돕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주니어유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베아트리스에게 자신을 동반해 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가정을 처음 방문할 때 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 알레잔드라는 베아트리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부모님께 그분들의 자녀가 관심을 보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그것이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구축 과정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거야. 그런 후 이 프로그램의 핵심 개념과 아이디어를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방문에서 진행될 내용이야. 우리가 희망하는 건 방문이 계속 이어져서, 부모님들이 주니어유스 그룹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실 뿐 아니라, 공동체의 주니어유스 영성 임파워먼트를 응원해 주시는 거야.”

알레잔드라와 베아트리스는 각 가정을 방문할 때 소개할 몇 가지 요지를 함께 논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모두 적어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는 그 중 일부

만을 다룰 것이고, 계속 이어지는 방문에서 남은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아래에는  
들이 주니어유스의 잠재력에 관해 열거할 요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한 개인의 삶에서 12세~15세는 대단히 중요한 연령입니다. 어린이가 성숙의 연령으로 변환하는 시기이죠.
- 이 연령대의 청소년을 종종 “주니어유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나, 아직 완전한 청년기에 이르지 않았습니니다.
- 주니어유스에 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종종 이들에게는 충동적이고, 반항적이며, 오로지 자신에게만 골몰해 있고, 언제나 위기 상태 속에 놓인 사람의 이미지로 덧씌워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와 다르게 그들을 바라봅니다. 생애의 이 짧은 시기 동안 누구든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격변을 거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 결과 어떤 종류의 반항을 이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는 무엇보다 막대한 잠재력과 크나큰 희망의 시기입니다.
-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우리 자신도 주니어유스였고, 그 연령대에 일어났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용기를 발휘했고, 때로 소심했습니다. 큰 사교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수줍어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을 표출하면서, 동시에 주목을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에 능한지, 어떤 재능과 능력을 지녔는지 알길 원했습니다. 다른 이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일시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인지 능력이 급속히 발달하는 때입니다. 이 때 사람은 존재의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석하고, 자신이 배워온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른들이 하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따랐다면, 이 시기부터 더 이상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른의 말과 행동 사이의 모순을 볼 때 더욱 더 그렇지요.
- 청소년들이 이 시기 분출하는 힘을 결실 있게 쓰도록 도움을 주려면, 그들을 어린이로 다루지 않는 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압도바하께서는 이 시기에 관해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머지않아 그가 청년기에 이르면 그의 역량 개발 속도에 따라서 이전의 조건과 필요를 새로운 요구가 대체하게 됩니다. 관찰력은 넓어지고 깊어지며, 지적 역량이 깨어나고 단련되며, 유년기에 부과했던 제한과 환경으로는 더 이상 청년기의 분출하는 활력과 성취를 제약할 수 없게 됩니다.”<sup>35</sup>

- 바하이 신앙의 최고 기구인 세계정의원은 우리가 주니어유스와 함께 일할 때 채택해야 할 접근법에 관해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연령대 사람들에 덧씌운 전형적 이미지는 그들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육체적, 정서적 변화 속에 방향 감각을 잃고, 반응하지 않으며, 오로지 개인적 관심사에만 파묻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하이 공동체는 언어와 접근 방식에서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주니어유스가 본래 지닌 이타성, 정의에 대한 예리한 감각, 우주에 대한 탐구의 열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열망을 확인해 왔습니다.”<sup>36</sup>

알레잔드라와 베아트리스는 이번에는 영적 임파워먼트에 집중해, 그 몇몇 특징을 확인해 봅니다.

- 12세에서 15세 사이 연령대 사람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등 그룹에 소속되려는 열망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본 프로그램은 “주니어유스 그룹”의 개념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각 그룹을 인도하는 한 명의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종종 이 연령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청년들이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 그룹은 정기적으로 함께 모입니다. 모임에서 주니어유스들은 중요한 개념을 탐구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특히 검열이나 놀림을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요. 그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성찰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격려를 받습니다.
- 무수히 많은 대단히 부정적인 힘들이 주니어유스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애니메이터는 주니어유스가 이러한 주위의 영향력

에 대항하는 힘을 스스로 기르도록 그들을 돕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붕괴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돕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인간 영혼이 본래 지닌 여러 내면의 힘을 육성하게 합니다. 주니어유스 연령대에 이것은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중요성을 띠는 것은 사고와 표현의 힘입니다. 젊은이는 세계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개념들을 표현하고, 스스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는지를 표현할 때 구비해야 할 언어적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 주니어유스들은 목적 있는 삶을 이루는 근본 개념들의 의미를 성찰하길 고대합니다. 행복, 희망, 탁월성이 그 중 몇 가지 개념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들에 관해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들 개념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알면, 스스로 건전한 도덕 구조를 구축하고, 사회 내 부정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힘을 획득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 개념 이해는 지성 개발에 본질적 요소입니다. 주니어유스들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하도록 기대 받지만, 정작 근본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기에, 때로 학교 공부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니어유스들이 도덕적, 수학적, 과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에 대해 더 깊이있게 성찰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학교에서의 학업 수행을 일정 정도 개선시켜 줍니다.
- 주니어유스는 이해력을 키우려는 크나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실체를 파악하길 원합니다. 이 일에 성공하려면 그들은 자신의 육체적 눈 뿐 아니라 영적 눈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은 영적 안목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힘을 인식하고, 마주한 상황 속에서 영적 원리를 확인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연속 교재의 도움을 받아, 도덕적, 영적 안목을 키우고, 표현력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교재들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소재로 한 단순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니어유스들은 이 교재를 공부하며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관련된 연습 활동

을 마친 후,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예술과 공예를 배우기도 합니다.

- 애니메이터의 도움을 받아, 주니어유스 그룹은 일정한 봉사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수행하곤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련의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주니어유스는 공동체의 필요에 관해 배우고, 그들 사이에서, 또 공동체의 다른 이들과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 교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각 교재는 주니어유스의 영적 임파워먼트에 본질적인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교재는 “확증”의 주제를 다루는데, 이 개념은 우리가 고귀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느님께서 그 노력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교재는 “희망”을 다루며,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도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개념들로는 “탁월성”, “기쁨”, “말의 힘”이 있습니다. 수학 개념을 다루는 한 교재에서 우리는 정돈된 마음의 습관에 관해 탐구합니다. 과학 분야를 다루는 한 교재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주니어유스들이 3년 동안 공부할 교재는 십여 권이 넘습니다.

알레잔드라와 베아트리스는 학부모들이 교재를 검토할 수 있도록 몇 권을 준비해 오려 합니다. 여러분이 아직 이 교재들에 익숙하지 않다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주니어유스 교재의 이야기들을 읽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에서 전개되는 대화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룹 내 참여자들과 함께 위에 제시된 개념들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이 개념들은 5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집니다. 그 교재를 공부한 후 주니어유스 그룹의 애니메이터로서 활동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그룹 일원의 가정을 체계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여기 소개된 개념들, 그 외 관련된 여러 개념을 함께 탐구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근간 어느 때라도, 베아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경험이 있는 몇몇 이들과 함께 공동체 내 주니어유스의 가정을 몇 차례 방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제 15장

다음 날 알렉산드라와 베아트리스는 인근에서 형성된 새 그룹에 합류하려는 세 명의 주니어유스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베아트리스는 영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관한 대화에 부모님들이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오후 시간이 거의 끝나갈 즈음 그는 알렉산드라 옆에서 주니어유스 그룹을 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 또한 애니메이터로서 봉사하는 법을 배워,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니어유스 새 그룹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껏 그래 왔던 것처럼, 자신의 보폭에 맞게 공부를 꾸준히 계속 해 나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알렉산드라의 꾸준한 원조와 격려를 받아 베아트리스는 봉사의 길에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조만간 3권 공부를 마칠 예정입니다. 그의 스터디서클의 조교는 새로 형성된 1단계 어린이교실의 교사로 봉사하는 마리벨에게 요청해, 어린이의 부모를 방문할 때 베아트리스와 다른 참여자들이 교대로 함께 가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베아트리스는 3권 공부에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몇 번 언급했듯이, 이 스터디서클에서 얻은 통찰은 그가 애니메이터로서 봉사할 때도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

마리벨이 베아트리스에게 에마의 어머니를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에마는 만날 때마다 즐거움을 줘. 배우는 걸 참 좋아해.” “에마 부모님 댁을 한 번 방문해 바하이 어린이교실의 성격에 관해 설명 드렸어.” 마리벨이 말합니다. “부모님은 에마가 교실에 참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어. 에마 어머니는 교실에 관해 더 듣길 원하셨고, 흥미를 보이셨지. 그래서 내가 다시 방문해 어린이 교실의 기본 교육 개념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적어보았어. 네가 괜찮다면, 내 노트를 훑어보며 같이 이야기 해 보자.” 베아트리스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둘이 함께 이야기 나눈 노트입니다.

- 첫째로, 나는 마티네즈 부인에게 에마를 어린이 교실에 초대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지 알려드리고, 에마가 보여준 몇 가지 놀라운 자질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해.
- 바하올라의 문헌에서 발췌한 아래 인용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해.

“인간을 이루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광산으로 여기라. 오직 교육만이 그 광산의 보석들을 드러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인류가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다.”<sup>37</sup>

-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는데 이 인용문이 어떤 큰 영향을 주었는지 나누고 싶어. 어린이들을 보고, 모든 아이가 저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진귀한 보석들로 가득 찬 광산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말아야. 모든 아이는 저마다 천상의 자질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모든 아이는 저마다 발굴하고 개발할 뛰어난 재능들이 있어. 모든 아이는 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세상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
- 그런 후,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드러낼 내면의 보석들을 말씀드리고 싶어. 예를 들어, 자연 법칙을 발견하고, 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고귀한 생각을 표현하는 역량 말아야.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모든 아이는 이런 힘들을 개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 그런데 그럴 수 있으려면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은 어떤 성품을 획득해야 해. 필요할 때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법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안녕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에 봉사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하지. 어린 나이부터 모든 아이들이 품성을 계발하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지.
- 마티네즈 부인에게 당신의 딸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시는지 여쭙 보려고 해. 에마가 계발하기를 바라시는 성품들은 어떤 것인지 말야.
- 어머니께서 언급하실 성품 가운데 어떤 것은 분명하게 영적 자질의 범주에 속할 거야. 내가 소개하려는 다음 주제가 바로 그것이야. 인간은 삶에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필수적인 속성들이 있어. 인간 영혼의 자질들을 말해. 우리 가슴의 거울을 잘 닦아서, 하느님의 속성을 되비출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 1단계 어린이교실의 내용은 주로 이런 자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 나는 1단계 어린이교실 과정에서 소개된 몇몇 영적 자질을 열거하려고 해. 어머니께 인용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 어머니께는 에마가 그 인용문을 암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께서 딸에게 암기한 내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거야. 에마가 배우게 될 기도문에 관해서도 말씀 드릴 거야.

- 사랑:

“벗어! 네 가슴의 정원에 사랑의 장미 외엔 아무 것도 심지 말라...”<sup>38</sup>

- 정의:

“정의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진정하게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sup>39</sup>

- 진실성:

“진실성은 인간의 모든 미덕의 토대다.”<sup>40</sup>

- 기쁨:

“네 가슴 속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네가 나를 만나 내 아름다움을 되비출  
이답게 되리라.”<sup>41</sup>

마리벨과 베아트리스는 위에 열거한 개념이 한 번의 방문에서 다룰 분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3권 공부로 나아가면, 루히 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영성 교육 6년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교육 원칙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 전에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린이교실 교사와 함께 부모님을 방문할 때 여기 소개된 개념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그룹 내에서 참여자들과 함께 위의 개념에 관해 논의해 보세요.



## 제 16장

앞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압둘바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 간에 우정과 결속의 끈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건설과 성취의 힘이 더 강력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계정의원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고, 우리 가정을 열어 사람들을 초대하면 “공동체 감각을 촉진하는 영적 유대를 다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성장하는 공동체의 문화에 작용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가정 방문에서 나눌 몇 가지 뚜렷한 대화 유형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봉사의 길을 걸어 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마을, 동네, 인근 지역에서 바하올라의 가르침이 개인의 삶과 공동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주제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때로는 보다 격식 있는 방문이 조직하여, 증가하는 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가르침에 관한 지식을 심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수원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 목표와 내용을 공유하는 장이 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구축 과정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일은 인근의 이웃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고,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봉사의 길을 응시하며, 이 단원의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각 주제에 관해 대화의 경험을 축적하고, 바하올라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꾸준히 심화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끝없는 기쁨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 참고 문헌

1. 바하올라,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4번.
2. 바하올라, 《바하이 기도서》에서 발췌.
3. 《바하올라 선집》 4.1.
4. 상동, 5.2.
5.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서 발췌.
6. 상동.
7. 상동.
8. 《세계평화의 선포》 (1912년 압돌바하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 강연집,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12) 23문단.
9. 압돌바하, 《바하이 기도서》에서 발췌.
10. 《바하올라 선집》 45.1.
11. 압돌바하, 쇼기 에펜디의 《바하올라의 세계질서》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91, 2012년쇄)에서 인용.
12. 《바하올라 선집》 5.5.
13. 《세계평화의 선포》 (1912년 압돌바하의 미국과 캐나다 방문 강연집,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12) 23문단.
14. 《과리강연집》 no.6.7-8.
15. 《바하올라 선집》 146.1.
16. 《세계평화의 선포》 4문단.
17.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44번.
18. 상동, 페르시아어 66번
19. 압돌바하의 한 성한에서 발췌. (공인 번역)
20. 《세계평화의 선포》 2문단.
21. 《압돌바하의 선집》 no.43.1
22. 상동, no.207.3
23. 바하올라, 《바하이 모임 - 바하올라, 압돌바하, 쇼기 에펜디의 저술에서 발췌》 (세계정의원 연구국 편집물,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79, 1980년쇄) p.3

24. 상동.
25. 《압둘바하 압바스의 성한》 (뉴욕 바하이 출판재단 1916, 1930년쇄) vol.3,p.631 (공인 번역).
26. 바하올라, 《지성서》 (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1993, 2013년쇄) 57문단.
27. 《압둘바하의 성한》 no.48.1.
28. 《세계정의원 메시지 1986-2001 형성대의 제 4기》(월메트 바하이출판재단 2010) no.69.2, 1989년 8월 27일자 서신에서.
29. 상동, no.69.9-10.
30.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82번.
31. 상동, 페르시아어 80번.
32. 압둘바하, 《신성한 문명의 비밀》 (월메트 바하이 출판재단 2007, 2016년쇄), 46문단.
33.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49번.
34. 쇼기 에펜디, 《바하이 뉴스》 (1926년 9월) no.13.
35. 《세계평화의 선포》 3문단.
36. 《활동의 틀 - 세계정의원의 메시지 모음과 보조 자료》 (웨스트 팜비치 팔라브라 출판사 2017) 2010년 4월 21일 서신, no.14.16.
37. 《바하올라 선집》 122.1.
38. 《숨겨진 말씀》 페르시아어 3번.
39. 《바하올라 선집》 118.1.
40. 압둘바하, 쇼기 에펜디 《신성한 정의의 도래》 40문단.
41. 《숨겨진 말씀》 아라비아어 36번.